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연구
: 2022년 선거방송을 중심으로

2023.1.

정보통신정책학회

제 출 문

㈜매일방송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연구 : 2022년 선거방송을 중심으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연구수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 책임자 :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요 약 문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기본적인 책무로 여겨지는 공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간주된다. 방송사업은 주파수의 수탁자라는 지위와 강력한 대중 영향력으로 인해 공익성 구현의 책무를 당연시해 왔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하위 개념인 방송의 공정성도 아직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기준도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이만제, 2022.1).

본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된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부과된 조건에 의거하여, MBN이 제작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2022년 초반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치루어졌으므로, 선거보도를 대상으로 공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공정성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개념들을 발굴하여 개념모형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Westerstahl(1983)의 객관성 모형을 준용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혀 상이한 모형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자의성을 감안하여, 권형둔 외(2015)가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된 것으로 실증한 5가지의 하위 개념,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을 공정성 개념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개념들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활용됨으로써 유용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송 내용을 평가 항목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자의 인식 또는 평가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기계적인 균형성이 실질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연구진이 동의하였으며, 측정 항목들과 공정성 구현 사이의 연계성도 모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이 결국 시청자에게 소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청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MBN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연구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서 하위 개

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복수의 질문 문항을 선행연구 사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을 매주 각 1회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530개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사전에 성,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현황과 근사하도록 표본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은 우선 문항별로 평균값을 구한 후 공정성 하위 개념 카테고리 별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를 성, 연령, 소득, 학력, 정치성향을 기준으로 세부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간 차이를 ANOVA 등으로 분석하고, 차이가 유의한 구체적인 세부집단을 사후 검증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타 TV 채널들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결과와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MBN의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위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 개념 카테고리별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자료를 하나로 압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공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회귀모형을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5점 척도이므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서열 프로빗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5개 하위 항목 중에서 진실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균형성, 다양성, 적절성은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MBN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실관계(팩트)도 비교적 정확히 전달하였으나,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 시국에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오보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균형성에 대해서 MBN 뉴스 프로그램은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골고루 보도하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도량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성과가 낮았다. 그러므로 MBN은 기사 자체보다는 편성에서 형식적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립성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기자의 논조가 당시의 여당에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역의 선거관련 소식도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보도하는 데에

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모든 문항들을 세부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인 공정성에서 보수 계층이 진보 계층보다 MBN의 뉴스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므로 MBN의 뉴스 프로그램이 20대와 진보 계층에게도 공정성을 더욱 소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MBN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타 채널과 비교하면,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 MBN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이나 보도전문 PP와는 아직 차이가 있어서 과제로 남는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진실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균형성과 적절성, 다양성이 비슷한 평가받았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MBN의 시사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보의 정정에 대해서는 뉴스와 같이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균형성에 대해서는 패널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량의 치우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편성 측면의 보완이 요구된다. 중립성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패널의 논조가 모두 당시 여당에 다소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한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패널의 전문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인 공정성이나 만족도에서는 보수 계층이 진보 계층보다 MBN의 시사 프로그램을 더 높게 평가했다. 그러므로 20대와 진보 계층에게도 MBN의 시사프로그램들이 공정성을 더욱 소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MBN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타 채널과 비교하면,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상파이나 보도전문 PP와는 아직 차이가 있다.

그리고 MBN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들의 평균값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종합적인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두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나 전략을 두 프로그램의 제작들진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진실성, 균형성, 다양성, 적절성이,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균형성, 다양성, 적절성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MBN의 액션플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겠다.

o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공동
  ①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정정보도
  ② 보도량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성 개선
  ③ 특정 정치권에 소폭 우호적인 입장의 개선
  ④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 배려
  ⑤ 20대와 진보 계층에 소구할 수 있도록 개선
o 뉴스 프로그램
  ① 투표할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충분히 제공
o 시사 프로그램
  ①패널진의 전문성 강화

목 차

Ⅰ. 서론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 11

Ⅱ.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 14
1. 방송의 공익성 ····· 14
2.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법제 ····· 16
3.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개념 ····· 18
가. 개념 ····· 18
나. 공정성의 다차원성 ····· 20
4.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23
가. 뉴스·시사 프로그램 포맷의 변화 ····· 23
나. 선행연구 분석 ····· 25

Ⅲ. 방송사업 재승인 제도 ····· 28
1. 재승인, 재허가 제도 ····· 28
2. MBN의 재승인 연혁 ····· 30

Ⅳ. 연구 방법 ····· 33
1. 공정성 측정의 기준/측정 모형 ····· 33
2. 선거보도의 공정성 측정 ····· 34
3. 공정성 분석 방법 ····· 37
4. 측정 항목의 도출 ····· 39
가. 뉴스 프로그램 조사 항목 ····· 40
나. 시사 프로그램 조사 항목 ····· 42
5. 설문조사 시행 ····· 44

V.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 47
1.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분석 ····· 47
가. 진실성 ····· 48
나. 균형성 ····· 52
다. 중립성 ····· 55
라. 다양성 ····· 56
마. 적절성 ····· 60
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 61
사. 타 방송 채널과의 비교 ····· 65
2.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분석 ····· 65
가. 진실성 ····· 66
나. 균형성 ····· 68
다. 중립성 ····· 71
라. 다양성 ····· 73
마. 적절성 ····· 76
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 79
사. 타 방송 채널과의 비교 ····· 82
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간 비교 ····· 82
3. 공정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85

VI. 결론 및 시사점 ····· 89

참고 문헌 ····· 92

부록 ····· 98

표 목 차

〈표1〉 『방송법』 제5조 ·····16
〈표2〉 『방송법』 제6조 ·····17
〈표3〉 『방송법』 제32조 ·····17
〈표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18
〈표5〉 2020.11월에 진행된 MBN 재승인 심사 결과 ·····31
〈표6〉 설문조사 표본설계 ·····44
〈표7〉 응답자의 인구통계변수 ·····44
〈표8〉 1주일에 1회 이상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TV채널 ·····47
〈표9〉 MBN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 빈도 ·····48
〈표10〉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9
〈표11〉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51
〈표12〉 뉴스의 균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3
〈표13〉 뉴스의 균형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54
〈표14〉 뉴스의 중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
〈표15〉 뉴스의 중립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56
〈표16〉 뉴스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
〈표17〉 뉴스의 다양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59
〈표18〉 뉴스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0
〈표19〉 뉴스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61
〈표20〉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모형의 하위 개념별 평균값 ·····62
〈표21〉 MBN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63
〈표22〉 MBN 뉴스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64
〈표23〉 평소에 시청하는 타 TV채널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65
〈표24〉 1주일에 1회 이상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TV채널 ·····66
〈표25〉 MBN의 시사 프로그램 시청 빈도 ·····66
〈표26〉 시사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7
〈표27〉 시사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68
〈표28〉 시사 프로그램의 균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9
〈표29〉 시사 프로그램의 균형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70

〈표30〉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2
〈표31〉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73
〈표32〉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4
〈표33〉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75
〈표34〉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7
〈표35〉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77
〈표36〉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모형의 하위 개념별 평균값 ·····79
〈표37〉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80
〈표38〉 MBN 시사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81
〈표39〉 평소에 시청하는 타 TV채널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82
〈표40〉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83
〈표41〉 공정성의 하위 개념에 대한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86
〈표42〉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87
〈표43〉 서열 프로빗 분석 결과 ·····88

그 림 목 차

[그림1] 2022년 현재 MBN이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 현황 ·····40
[그림2] 2022년 현재 MBN이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현황 ·····42

I. 서론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은 전통적으로 공익성(Public Interest)과 공공성을 지닌 매체로 간주되어 왔다.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줄인 말로, 공동선(Common Good) 또는 공공복리(Commonwealth)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인다(이효성, 1996). 그러나 공익에는 공동체의 권익, 다수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편화된 가치 등 포괄적인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다(도준호·변상규, 2010).

방송이 공익적 의무를 부과받게 된 데에는 주파수의 수탁자(spectrum trustee)라는 지위와 광파성(廣波性)에 의한 대중 영향력에 기인한다. 주파수는 국민이 소유한 유한한 공적 자원이다. 그런데 동일한 전파를 같은 공간에서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간섭현상이 일어나서 서로를 방해하며, 급기야는 사용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진 주체만이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정부가 그 사용권을 허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파수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업자는 전파 이용 대가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은 금전적 대가 대신에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봉사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또한 20세기에 출현한 방송은 라디오에서 TV로 발전하고, 흑백에서 컬러로, 다시 디지털 방송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가구가 방송수상기를 갖추게 되었고, 보급률이나 이용시간의 측면에서 주력 미디어로 일찌감치 자리잡았다. 그리고 방송은 문화적 측면과 여론형성 측면에서 막대한 대중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방송사업에 대한 중요한 진입장벽인 정부의 특허가 사업자를 공인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이런 배경에서 대중은 방송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방송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 역할의 요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적 의무 및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배진아, 2007). 그러나 최근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이로 인해 미디어별 집중도가 약화되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규제의 정당성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방송 부문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데이터 압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주파수의 가용 용량이 확대되는 바람에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명제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사적으로 구축하는 유선망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송영상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주파수의 생산도 가능해져서, 주파수의 희소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파수에 근거를 둔 방송규제가 타당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의 대중 영향력은 여전하며, 이를 근거로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은 방송의 출발점으로,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탓에 공익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공익적인 매체로서의 지위가 견고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후속 출범한 케이블방송이나 IPTV 등 공중(on-air)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유료방송에게도 공익성 실현의 의무가 상당히 전이되었다. 이러한 의무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여타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방송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방송의 공정성은 공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거론되는데, 방송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은 사전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말하는데(표준국어대사전), 영어로 'fairness' 또는 'impartiality'로 표현된다(이창현, 2008). 또한 단순히 중립적인 것 이외에 대상에 대한 가치의 판단과 이데올로기적인 평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정의되기도 한다(권형둔・하주용・배진아, 2015).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방송의 공정성은 아직 개념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방송 환경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는다(원희영・윤석민, 2015).

일반적으로 지상파방송, 보도와 종합편성을 하는 PP(Program Provider) 사업자에게는 높은 공적 책무와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신고제로 운영되는 여타 방송사업과는 달리, 이들 방송사들은 허가제 혹은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종합편성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출범 당시부터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원희영・윤석민, 2015).

방송통신위원회(2010.9.17.)는 종합편성 사업자들을 승인하면서 핵심적인 4개의 목표를 발표하였다. 우선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출현하는 다양한 융합형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방송의 대국민 효용을 확대하여 공익적인 역할의 확대를 도모한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콘텐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며,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비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들이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방송 뉴스 시장의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새로운 뉴스 사업자의 진출로 지상파 중심의 여론 독점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과 대립하였다(장호순, 2008). 종합편성 채널을 둘러싼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다(원희영・윤석민, 2015). 일례로 2016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된 방송심의 민원 중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4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공정성 위반과 객관성 위반이 63%를 차지하였다(연합뉴스, 2017.2.21.).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들이 다분히 직관적인 평가 내지 이념적인 주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원희영・윤석민(2015)은 2012년 하반기에 치러진 18대 대선기간을 대상으로 종합편성 채널이 제공한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종합편성 채널의 뉴스가 지상파방송인 SBS에 비해 정량적 및 정성적 차원 모두에서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높은 편향성을 보였는데, 진행자・앵커・기자의 편향성이 대선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종합편성 채널들은 2020년에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3년의 유효기간을 얻었다. 그리고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적인 책임과 공정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라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받았다. MBN(매일방송)도 재승인 가능 최저 점수에 미달하여 17개의 재승인 조건과 5개의 권고사항을 부과받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구체성을 갖추지도, 합의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방송법과 심의 규정, 언론사의 보도 기준도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최영재・홍성구, 2004). 그러므로 모호한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조경숙・한균태, 2010), 보도에서 완벽한 공정성 또은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마저 있다(홍성철・김동준・오경수, 2022.1).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8월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방송된 MBN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공정성의 개념을 모델링하고, 하위 개념을 측정하는 질문들을 만들어 MBN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Ⅱ.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1. 방송의 공익성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익성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합의도 아직 없다. Barendt(1992)는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제의 근거로 공적 자원(Public Resource), 주파수의 희소성(Frequency Scarcity), 사회적인 영향력(Social Influence)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영묵(1997)은 방송의 공익성의 근거를 사회 책임론, 공공재 산업론, 공론장 이론, 참여 민주주의론으로 정리했다. 한균태(2003)는 전파 희소성, 시장논리, 숙의 민주주의로 정리하였고, 김진웅(2003)은 수탁 이론, 공론장 이론, 숙의 민주주의, 시장경쟁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김승수(2007)는 방송의 영향력, 보편성, 주파수의 희소성, 국가 안보, 공공 정보, 공공 문화, 공공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의 증대라고 주장하였다. 임정수(2008)는 방송의 공익성을 공공 수탁론, 공론장 이론, 수용자 복지론과 보편적 서비스론을 포함하는 공리주의적 방송공익론 등 3가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방송공익론은 수용자 복지론(Audience Welfare)과 통신산업으로부터 도입된 보편적 서비스론(Universal Service)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방송에 공익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나 정책당국은 방송이 주파수를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물리적인 특성과, 방송이 가진 막강한 대중 영향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파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누구나 사용하면 혼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외부성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희소한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전파를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파사용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파사용에 대한 허가가 정당화된다. 미국에서는 Radio Act(1927)를 제정하여 정부가 라디오 전파를 통제함으로써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이 소유한 유한한 희소자원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면, 반대급부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공익적인 임무도 부여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정부에 의한 규제의 타당성은 케이블망 속에서 주파

수를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케이블TV 사업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사적 망인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RF(radio frequency) 혹은 IP(internet protocol)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확대(투자)에 의해 주파수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주파수가 생산 가능한 재화가 되어 주파수의 희소성은 크게 약화된다. 그러므로 주파수의 수탁자 이론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익적 의무 부여와 규제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타당성이 약하다.

방송의 막강한 대중 영향력도 공익적 역할 요구에 대한 근거로 거론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현재 TV 이용률은 전 국민의 96.5%에 이르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158분으로 모든 매체 가운데 가장 길다(방송통신위원회, 2021.12). 그래서 스마트폰과 함께 매체 영향력과 매체 충성도 측면에서 방송은 최고의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전파의 특성상 송출되면 동시적으로 넓은 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어 방송의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방송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오락, 교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여론형성, 경제활동 영위, 문화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해 소수의 사업자가 독과점할 수 밖에 없는 방송사업의 현실 때문에 방송의 영향력은 더욱 집중되었다. 그러므로 방송의 공정성 · 다양성 · 객관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이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반되는 시각으로 방송의 공익성에 접근하고 있다. 강력한 공영방송 체제를 운영해 온 영국에서는 1920년대에 공영방송 BBC의 초대 사장이었던 John Reith 경이 방송 수용자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적인 공익성의 관점을 주장하였다(이창근, 1997). 그는 방송이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 교육적인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여겼다. 영국은 이 기조를 유지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공리주의 차원의 공익론도 결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임정수, 2008).

상업방송 위주의 방송시장 환경을 구축한 미국에서 방송의 공익성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지역주의(Localism), 다양성(Diversity), 경쟁(Competition)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주성희 · 김대규 · 김성규, 2012).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시장을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방하면서, 1980년대에 방송정책 전반에서 탈규제 추세가 나타나고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2.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법제

방송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적인 책임을 구현해야 하는 의무는 방송 법규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 제1조에는 방송법의 목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과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조항들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으며(최우정, 2014),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차별하지 않는다.

『방송법』 제5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제1항), '화합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제2항), '타인의 명예 및 권리 존중'(제3항), '범죄 및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제4절, 제5절)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1>『방송법』 제5조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법』 제6조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제1항), '계층간 무차별 편성'(제2항), '소수 계층의 이익 반영'(제5항), '지역사회에 이바지'(제6항), '집단간 균형성의 보장'(제9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객관성과 다양성, 균형성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균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2>『방송법』 제6조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방송법』 제32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성 및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할 것을 규정하고(제1항), 심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제안하고 있다(제2항). 그러므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는 방송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에 규제를 가하는 사후규제의 형식을 띤다(조연하, 2012).

<표3>『방송법』 제32조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의 공정성이 규정되어 있다(제9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성(제1항), 균형성(제2항, 제5항), 중립성(제3항), 다양성(제5항) 등으로 해석된다.

<표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개념

가.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정성(公正性)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올바른 성질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은 기계적인 균형이나 중립의 개념은 아니다(김승수, 2004). 오히려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과 합의를 통해 구성될 수 있는 개념이다(최영재・홍성구, 2004).

미디어 영역에서의 공정성은 대립되는 사안이나 주장을 다룰 때에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조항제, 2019). 그러므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완수・박재영, 2013). 그런데 강태영(2004)은 공정성이 양적인 균형을 의미하기보다는 불편부당한 보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무게가 다른 이슈들을 균형을 맞추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이만제, 2022.1). Annan Committee(1977)도 산술적인 균형이 언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민웅(2003)도 진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주장을 비판하는 적극적 중립성을 요구하였다.

윤석민(2015)은 공정성의 학술적인 논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객관성과 대체가능 또는 그 하위 개념인 불편부당성이라는 주장, 양적 질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균형적인 태도, 다양성 보장으로 편향성 최소화, 고정된 형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닌 역사적・사회적인 맥락을 고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개념

등이다.

방송에서는 공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공정성이 거론된다. 문재완(2018)은 공정성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요구되는 공익성의 한 측면이라고 판단하였다. 윤성옥(2009)도 공정성이 객관성, 균형성 등과 함께 방송의 공익성을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보았고, 프로그램의 심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최영재・홍성구, 2004).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뉴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더욱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태진・김경모, 2006).

방송의 공정성은 해외에서도 강조되는 이념적 가치로 자리잡았다(김관규・배진한・김용환・박연진, 2021.1). 미국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왔다(이만제, 2022.1). FCC는 1949년에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도입하였는데, 논쟁을 다룰 때에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방송에서 다양한 관점이 표현 및 논의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를 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Arbuckle, 2014). 그런데 FCC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파의 희소성이 줄어들고 방송 채널이 늘어나면서 한 매체에서 다양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체적인 관점과 여론의 다양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87년에 이 원칙을 폐지하였다(Croanauer, 1994).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은 방송 뉴스가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과 적절한 정확성(due accuracy)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은 방송의 공정성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홍성철・오경수・류은아, 2021), 모든 견해에 대해 기계적으로 동등한 시간을 배분하거나 모든 주장이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nnan Committee(1977)는 '방송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광범위한 의견을 프로그램에 담고 의견의 무게까지 고려하여 다수의 의견이 더 큰 비중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효성, 2002).

방송에서 공적 책임은 공정성과 함께 방송이 추구할 가치이자 의무로 받아들여져 왔다(이만제, 2022.1). 그리고 정부, 시청자, 방송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문재완, 2018). 그리고 공적 책임이 수용자의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만제, 2022.1). 이 프로그램들은 방송 제작자의 가치관과 방송사의 이익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현실적으로 편향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뉴스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관점이 있다(Tuchman, 1978). 뉴스가 선택과 해석을 거쳐 재구성된 현실을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뜻이다(조경숙・한균태, 2010). 그래서 유종원(1995)은 언론의 역할을 공정한 심판형, 관찰자와 기록자로서 배심원형,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단독 판사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공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동안 학계 등에서 공정성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모호하며 변화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원희영・윤석민, 2015). 『방송법』과 언론관계법, 심의 규정, 언론사의 보도 기준들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최영재・홍성구, 2004). 그러므로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법의 개발에도 제약과 비판이 따른다(유경한・심훈・김경모, 2016).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의 초점을 개별 매체의 공정성에서 다양한 관점이 경쟁 및 공존하는 미디어 환경의 조성으로 옮기거나(배진아・유수정, 2021), 자율규제나 업계와의 공동규제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유승관,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은 사회적인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내포하고 있고, 방송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방송의 불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이만제, 2022.1; 홍성철 외, 2022.1).

나. 공정성의 다차원성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실에 입각했는지, 다양한 관심사를 다루었는지,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분석해 왔다(이진영・박재영, 2010). 그런데 공정성의 개념이 다차원적으로 제안되는 가운데, 하위 개념들은 모호하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며, 위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관찰된다. 그래서 공정성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고(이만제, 2022.1; 전희락・황성연, 2022.1), 관련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esterstahl(1983)은 객관성을 사실성, 불편부당성으로 1차로 구분하고, 사실성 아래에 진실, 관련성을, 불편부당성 아래에 균형, 중립성 등을 2차로 구분하였다. 불편부당성은 중립적인 태도를 전제로 상반되는 관점에 대해 동등 또는 비례

적으로 시간, 공간, 중요성을 배분하는 균형성을 포함하며, 방송에서 특히 불편부당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다양한 언론이 존재하면 특정 매체의 편향성을 다른 매체가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으나, 방송은 전파의 유한성으로 인해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불편부당성은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등의 용어와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등 모호하며, 현실적으로 전적으로 중립적이며 가치를 배제한 인식이 불가능함에도 사실과 가치의 엄격한 분리를 추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박성호, 2017). 또한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역사적, 사회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민웅 외, 2006).

중립성에 대해 McQuail(2005)은 사실과 가치판단이나 의견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민웅(1996)은 소극적인 중립성과 적극적인 중립성을 구분하였는데, 소극적인 중립성이 양시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시청자에게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냉소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적극적인 중립성은 중립적 자세로 취재하고, 진실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균형성에 대해 조항제(2019)는 경직된 균형성이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무게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성에 대해 Westerstahl(1983)은 정보나 이슈가 쟁점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문종대・윤영태(2004)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뉴스인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정보를 담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Westerstahl(1983)의 모형은 후속 연구들에서 많이 참고되고 있다. 강명구(1989)는 최상위 개념인 객관성을 공정성으로 바꾸었고,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는 사실성, 불편부당성에 다양성을 1차 하위 개념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관련성을 유사 개념인 적절성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적절성은 어떤 뉴스가 사회적으로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권형둔 외, 2015).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McQuail, 2005). 그리고 다양성 아래에 다양성과 독립성을 포함시켰다. 강태영・권영설(2000)은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Westerstahl(1983)이 주장한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에 다양성과 종합성(심층성)을 추가하였다. 이민웅(1996)은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불편부당성)에 다양성과 이데올로기를 추가하였다. 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2007)는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에 다양성

과 독립성, 상업성, 윤리성 등을 추가하였다. 김연식(2009)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타당성, 형평성을 제시하였고, 취재의 정당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타당성 아래에 사실성과 맥락성을, 형평성에 균형성과 중립성, 다양성을 포함하였다. 취재의 정당성에는 자율성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Ward(2015)는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실성, 공평성, 비편향성, 독립성, 비해석적, 중립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준웅・김경모(2008)는 공정한 보도의 전제로 다양성 확보를, 내연적 가치로 담론적 공정성을, 외연적 가치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시하였다. 다양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제공된 관점이나 의견, 주장, 정보의 다양성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과 관심사가 고루 반영되느냐의 두 측면을 포함한다(이민웅, 1996). 담론적 공정성은 담론의 영향력 내 대상의 목소리가 담론 구성과정에 반영됨을 의미하며, 약자 배려는 담론 영향력 바깥의 관점이나 사회 비지배적인 관점도 충분히 반영함을 의미한다.

원용진・홍성일・방희경(2008)은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성을 공정성의 주요 요소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를 검열하고 통제해 온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데올로기성이 뉴스의 공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동우・황용석(2012)은 객관주의적 차원에서 사실성과 균형성을, 탈객관주의적 차원에서 정파성과 주관성, 주창성을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심훈(2014)은 공정보도가 공론과 정론의 이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론에는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이 포함되고, 정론에는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강명구(1989)는 공정성의 하위 개념을 사실성 검증, 윤리성 검증, 이데올로기 검증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사실성 검증은 정확성과 균형성, 윤리성 검증은 합법성과 윤리성, 이데올로기 검증은 전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검증으로 구성하였다.

이만제(2022.1)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공정성에는 형식적 균형성, 내적 불편부당성, 사회정의의 실현이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양적으로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균형감 있는 기사 배분이나 의견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방송에서의 공정성은 Westerstahl(1983)의 모형에 다양한 수정을 가하였거나, 혹은 다양한 개념 모델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자의성으로 인해 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델에서도 구체적이고 합의된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권형둔 외(2015)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공정성의 하위 개념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35개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진실성이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균형성이 16회, 중립성이 13회, 다양성이 9회, 적절성이 8회 등의 순으로 자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개념을 공정성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여기서 다양성을 제외한 4개가 Westerstahl(1983)이 제안한 하위 개념과 일치한다. 진실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사실성, 사실 타당성 등을 포괄하며, 균형성은 형평성, 동등성과 유사범주로 간주했다. 중립성은 불편부당성과 같이 묶었고, 다양성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정보가 제공되는지와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심사가 골고루 반영되는지 등 2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정성의 개념과 하위 개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Westerstahl(1983)이 제안한 진실성, 관련성 또는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과 이데올로기도 많이 다루어졌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자주 다루어졌는데, 이는 다양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이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희락・황성연(2022.1)은 공정성 논의가 공정성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화 작업에 지나지 않으며, 방송 제작 현실이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박성호(2017)는 공정성의 하위 요소들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고, 요소들 사이에 모순과 경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원희영・윤석민(2015)은 공정성의 하위 요인들을 빠짐 없이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이며, 이러한 시도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뉴스・시사 프로그램 포맷의 변화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한 이후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의 포맷에서 기존 지상파방송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종합편성 채널의 초기부터 모체인 신문사와 협력하여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들이 협업하는 통합 뉴스룸을 운영하였다(박형준, 2014). 이는 신문사들이 보유한 보도 부문의 전문성과 인력을 방송에 활용한 것이다.

수용자에게 소구하는 특징으로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모두 출연자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지상파방송 뉴스에는 앵커 이외의 출연자가 드물었으나,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출연자가 다수 등장하여 대담이나 토론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20대 총선 시기에 지상파방송 3사의 메인 뉴스는 논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TV조선의 메인뉴스에서는 전체 보도의 8.56%를 논평에 할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6). 이러한 포맷은 기존 뉴스 프로그램의 도식을 깬 것으로 평가받는다(원희영・윤석민, 2015).

더 큰 변화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타났다. 주로 정치 이슈를 주제로 다수의 토론자들이 등장하는 포맷으로, 뉴스와 토크의 특징과 오락성이 강조되는 구성이다(김정렴・전종우, 2019). 지상파방송이 제작한 시사 프로그램은 기자들의 취재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정치 및 시사 평론가의 해설과 평론이 핵심이 되고 있다(류동협・홍성일, 2013). 그리고 진행자는 출연자와 수평적인 위치에서 사담 형태로 정치 비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전희락・황성연, 2022.1). 출연자들은 대부분 교수, 변호사, 정치인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송승호・김동규, 2018), 근래에는 전문적인 패널로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시사 프로그램은 종편이 고안한 고유한 포맷으로, 시사 대담, 시사 토크쇼 등으로 불리거나 정치 정보와 오락적인 요소가 결합된 정치예능이나 정치엔터테인먼트로 불리기도 한다(오은정・민영, 2015). 이러한 시사 프로그램들이 종편 저널리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기형, 2014; 이영주, 2016).

종합편성 채널들은 출범 초기에 시청률 경쟁과 채널의 홍보, 광고 매출의 증대를 위해 뉴스, 드라마, 오락・예능, 교양 등 전 장르에서 다양한 편성을 시도했다. 일부 종합편성사업자는 드라마와 예능에 제작비를 많이 투입하였으나(박현수, 2011), 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작비가 비교적 적게 들면서도 시청률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편성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정지영・유세경, 2015). 류동협・홍성일(2013)은 시사 프로그램이 종합편성 채널의 시청률, 정치적 영향력, 충성 시청자층의 확보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종합편성사업자에 의해 시사 프로그램이 변화하면서 시청자 복지의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노동렬・조아라, 2022.1). 그러나 종편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에 대해 정파성, 공정성, 품위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전희락・황성연, 2022.1).

나. 선행연구 분석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하면서 제공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존의 지상파 채널과 비교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뉴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다양성 측면에서 종합편성 채널들은 초기에는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포맷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2012년 4분기에 치른 대통령선거 기간부터 선거 및 정치 관련 뉴스에 집중하였다는 분석이 있다(유수정, 2018). 이로 인해 평소 대비 두 배 이상의 시청률을 달성하였지만, 종합편성 채널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다양성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희영・윤석민(2015)도 동일한 시기를 대상으로 종합편성 채널과 SBS의 메인 뉴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합편성 채널이 선거 관련 보도를 2 ~ 7배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양기문・이상우(2017)는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시기를 대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 뉴스를 분석하였다. 일부 종합편성 채널에서 선거 관련 보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영・유세경(2014)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주제는 지상파방송이, 소주제는 종합편성 채널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행자나 기자 태도의 다양성은 종합편성 채널이, 취재원 태도의 다양성은 지상파방송이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이 보도 관점의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성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강명현(2016)은 KBS와 SBS, TV조선과 JTBC의 메인 뉴스를 분석하였는데, 뉴스 주제의 다양성이 ‘KBS > SBS > JTBC > TV조선’의 순으로 나타나, 지상파방송이 더욱 다양한 보도를 제공함을 밝혔다. 반면, 종합편성 채널에는 전문가의 등장 비율이 높고, 개별 뉴스 아이템의 시간도 더 긴 것으로 평가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편성 채널들이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사들을 많이 출연시켰고, 이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원희영・윤석민, 2015). 이승엽 외(2017)는 2014년 지방선거 시기에 3개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방송에 비해 중립적인 보도의 비율이 낮고, 특정 정당에 선호를 표시하는 보도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의 운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편향성이 개선되는 추세도 발견된다. 이종혁・정낙원・김세은(2016)은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시기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 뉴스를 분석하였다. TV조선과 채널A가 특정 정당의 주장을 많이 보도하였다고 평가한 가운데, 취재원 운영이나 보도 형식의

다양성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유수정・이건호(2017)는 2012년 ~ 2015년의 무상복지 이슈에 대하여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 뉴스의 보도 태도를 분석하였다. 초기에 TV조선과 채널A에서 무상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논조가 강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채널에서 반대가 완화되거나 찬성하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혔다. 유용민(2018)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시기인 2016년 12월 ~ 2017년 3월에 탄핵에 대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의 메인 뉴스 보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과 지상파방송 사이에 특별한 경향성이나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취재원의 태도도 중립적인 비율이 높았고, 방송사 사이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기계적인 중립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 수용자들은 보도 내용의 진위 판단이나 맥락, 함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Pennycook & Rand, 2019). 그러므로 중요한 보도 내용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심층취재, 시사 토론 및 논평 등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완수, 2019).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새로운 포맷으로 바뀌었고, 출연진을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하는 바람에 제작자인 방송사의 통제와 책임 밖에서 편향성 등의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합리적인 논증보다는 비논리적인 발화와 약식 논증을 거친 정파적이고 여권 편향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평가받았다(유경한 외, 2016). 이기형(2014)은 이를 ‘거친 저널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자와 대담자의 관계를 해체하고, 개인적인 사담의 형식으로 감성적인 대화로 구성된다고 평가받는다(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이러한 감성 기반의 대담은 감성적인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와 혐오,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고,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이정훈・이상기, 2016). 특히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은 계층 분화 형식의 담론을 구성하여 민주주의 질서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김영빈・한혜경, 2018). 그리고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쾌도난마’에 제시된 자막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구교태, 2016).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는 다수의 패널이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 송승호・김동규(2018)는 기존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과는 다른 측면에서 시청자에게 소구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패널 저널리즘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패널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들어 패널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영주(2016)도 종편 4채널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들이 현실정치와 미디어를 매개하면서 편향성을 보이고, 직접적으로 정치권력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즉, 패널 중에서 정당인 또는 정당활동 경력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패널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소개되지 않은 채 편향된 발언과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정확한 이해와 판단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손화정・이영주, 2019). 또한 여러 채널에 겹치기 출연을 하는 전문 패널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의견의 다양성이 하락하며, 전문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들이 초기와는 달리 영향력과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과 선정성이 개선되었고, 진보적인 토론자들을 출연시켜 시청자층의 다변화를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김정렴・전종우, 2019).

Ⅲ. 방송사업 재승인 제도

1. 재승인, 재허가 제도

허가 혹은 승인을 통해 방송사업에 진입한 방송사업자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 PP사업자인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방송법』 제17조 2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요식적인 절차로 인식되어 왔다(김창규, 2005). 그러나 2000년 『방송법』에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제도가 도입되었고, 방송평가의 결과가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었으며,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제101조)가 마련되는 등 체제가 정비되었다.

정부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사전·사후 규제의 수단으로 재허가, 재승인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학계에서도 방송사업자 재허가 또는 재승인의 성격이나, 허가와 재허가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기존 면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결격사유 점검을 통한 사업연장의 관점과, 기간제로 사업권을 허가해 준 것이므로 새롭게 허가 심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신규허가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에서 재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경인방송(iTV) 밖에 없다. 2004년 12월 31일에 방송위원회는 ‘iTV’의 자본잠식으로 인해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인 능력 부족, 허가 시 약속한 사회 환원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재허가 거부는 이례적이며, 실제로는 대부분 조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전부 재허가가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방송 재허가는 경쟁을 통한 허가심사와는 달리 사업권 연장의 성격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재허가는 큰 잘못이 없다면 면허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갱신에 대한 기대(renewal expectancy)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성욱제, 2013). 이에 대해 김대호(2005)는 재허가 과정에 신규 사업자까지 참여하여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적인 관점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재허가에 대해 면허갱신이 아닌 새로운 면허의 발급

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면허기간의 만료와 재면허는 면허기간의 갱신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김창규, 2005).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방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러나 시청자의 권익 보호, 공적책임의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에 대해 김대호(2005)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자 허가기간을 10년 정도로 길게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형성・지성우(2005)도 허가기간을 당시의 3년에서 5년 ~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허가나 승인 기간의 일괄적인 연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정치적인 부담을 덜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허가기간의 연장을 지지하는 견해가 많다. 한편, 심사점수가 낮은 사업자에게 허가나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이, 좋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2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모두 제공하자는 주장도 있다(김경환, 2015).

재허가 심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심사항목들 사이에 계위가 맞지 않거나(성욱제, 2013), 이로 인해 세부 심사항목들 사이에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종원, 2014; 전현수, 2011). 그리고 김재영・이승선(2012)은 방송평가의 내용이 이중으로 재허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심사기준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 영역이 넓어지는 문제도 지적되었다(이종원, 2014). 박동욱・이종원・김태오・박민성(2014)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으로 심사의 방향이나 원칙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심사때 마다 기본방향 및 심사기준을 매번 정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심사항목의 배점이 자의적이어서 심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김경환, 2015; 정인숙・정상윤, 2011). 그래서 전현수(2011)는 재허가에서 점수화보다는 통과 여부만 체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매체별 특성이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도 지적되었다(송종현, 2011; 홍대식, 2011).

종합편성 채널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의제 설정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제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세 번의 재승인 심사 결과, 현실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지는 매우 의문시된다(이만제, 2022.1). 그러므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해당 방송사의 공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과정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 MBN의 재승인 연혁

TV조선과 JTBC는 2011년 3월 31일에 3년의 유효기간으로 승인장을 받았다. 그리고 채널A는 4월 21일에, MBN은 11월 30일에 각각 승인장을 받았다.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사업자마다 세 차례의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MBN은 3번의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3년의 유효기간을 획득하였다. 그래서 2014년 11월 30일, 2017년 11월 30일, 2020년 11월 30일에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4번째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 30일 까지이다.

2020년도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총점 1,000점(1,050점을 1,000점으로 환산함)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한다. 그리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한다. 그런데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점 심사사항인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 결과 MBN은 640.5점을 받아서 재승인 가능 최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였다. 그리고 '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도 45.04점을 획득하여 배점(100점)의 50%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을 거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 관련 종사자가 3,000여 명에 달하며 약 900만의 시청가구가 있기 때문에 재승인 거부 시에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의 방송 시청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처분하였다. 그리하여 총 17개의 재승인 조건과 5개의 권고사항을 부과

하였는데, MBN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표5> 2020.11월에 진행된 MBN 재승인 심사 결과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MBN
1. 방송평가	400	332.07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109.24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59.79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38.55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9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02.85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27.55
3-2.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42.2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10.80
3-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40	22.3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3.12
4-1. 경영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23.37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18.35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1.4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45.04
5-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16.29
5-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	-7.43
5-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	-3.42
5-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39.6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30.20
6-1. 재난방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30.20
합계	1050	672.52
1,000점 환산	1000	640.50

재승인 조건 중에는 ‘5.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사· 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건은 본 연구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Ⅳ. 연구 방법

1. 공정성 측정의 기준/측정 모형

권형둔 외(2015)는 공정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공정성 하위 개념 48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단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서 35개로 정리하였다. 이 개념들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횟수는 모두 109회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 진실성이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균형성 16회, 중립성 13회, 다양성 9회, 적절성 8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다섯 가지 요인들 중에서 다양성을 제외한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적절성은 Westerstahl(1983)의 객관성 모델에서 제시한 하위 개념들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상당한 자의성이 포함된 다양한 개념적 모델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많이 활용된 요인들은 그 유용함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겟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아서 개념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권형둔 외(2015)가 분류한 다섯 가지 하위 개념을 공정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 모델이 학계에서 공정성 논의의 기준이 되는 Westerstahl(1983)의 모형과도 유사하므로, 학술적인 근거도 있다.

공정성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살펴본다. 진실성(truth)에 대해 이민웅 외(1993)는 기사 내용의 정확성,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거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광범위한 취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균형성(balance)에 대해서 이민웅(1996)은 시간 배분, 뉴스 항목의 제시 순서, 인터뷰 음성, 영상처리 등에서 양적인 균형을 이루느냐와, 상반된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느냐는 질적 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에 대해서 Westerstahl(1983)은 기자가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이 가장 개입하기 쉬운 영역으로 보았다. 이민웅(1996)은 양시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최종 판단을 시청자의 몫으로 미루는 소극적인 중립성과, 이슈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 뒤에 취재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적극적인 중립성으로 구분하였다. 강태영・권영설(2000)은 균형성을 양적 균형으로,

중립성을 질적 균형으로 보았다.

다양성(diversity)에 대해 이민웅 외(1993)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폭넓은 정보와 견해를 고르게 보도하며, 중요한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제공하느냐의 측면과,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입장과 관심사가 골고루 반영되는가의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민웅, 1996). 적절성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고,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된다(이민웅 외, 1993).

2. 선거보도의 공정성 측정

2022년에는 두 차례의 선거가 치루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졌고, 2022년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루어졌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보도에서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유종원, 1995), 특히 선거보도는 선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욱 강조된다. 원희영・윤석민(2015)은 감정, 편견에 호소하는 정파적인 선거방송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보도에서 만큼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2017년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2020년의 제21대 총선 기간의 방송 보도에 대해 형식적, 산술적인 공정성은 준수되었으나 교묘한 편들기는 여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홍성철 외, 2021.1). 그러므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홍성철 외(2021.1)는 선거 보도에서는 평소의 공정성과는 다른 각도인 형식적인 균형성과 내적인 불편부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2021.12)도 선거보도의 심층성을 강조하였는데, 단순한 사실보도 이외에 유권자의 이해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해설적, 평가적인 내용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희영・윤석민(2015)은 2012년에 치루어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방송된 종편 4개 채널과 지상파 방송사 SBS의 저녁 메인 종합뉴스를 대상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종합편성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보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직관적인 평가 또는 이념적인 주장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비판하고, 이를 실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은 대선 후보가 정해진 2012년 9월 17일부터 12월 19일 대선 선거일 직전까지의 뉴스에 대해 이루어졌다.

공정성의 하위 개념을 정량적인 편향성과 정성적인 편향성으로 구분하고, 공정성에 대한 이원적인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정량적인 편향성으로 등장인물의 균형성을 측정하였는데, 인터뷰이(interviewee) 및 출연진별 보도시간을 계산하여 진영별 등장인물들의 발언 길이의 균형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정량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이 양적인 균형성에 경도되어 질적 차원의 편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정성적인 편향성으로 보완하였다. 정성적인 편향성은 윤색적인 어휘의 사용, 주관적인 감정, 검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 또는 글, 감정이 명백하게 드러난 얼굴 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대선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 후보 편향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18대 대선 보도에서 종합편성 채널들은 SBS에 비해 정량적 및 정성적 차원 모두에서 편향성이 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향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진행자・앵커・기자의 편향성이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심화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종합편성 채널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재승인에서 부과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복수의 외부 전문 기관들로부터 시사・ 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그 중에는 선거보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2021.12)는 2021년의 재보궐 선거 기간 중에서 후보 등록일(3월 18일)부터 선거 당일(4월 7일) 사이에 채널A가 보도한 선거에 관련된 122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공정성을 균형성, 다양성, 심층성으로 개념화하고, 측정 항목을 기사 형식과 기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기사 형식은 기사의 길이, 리포트 구성 방식(스트레이트형, 제작형, 절충형)을 측정하였다. 기사 내용은 제목과 관련하여 제목 등장인물, 제목 등장 정당, 제목의 주제, 직접 인용문구 존재 여부를 측정하였다. 본문 관련으로는 언급된 선거구, 기사 본문의 주요 내용, 정보 출처, 기사 구성의 심층성(전달중심, 설명중심, 평가 중심), 주관개입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취재원 관련으로는 취재원의 수, 취재원 유형, 취재원 등장 형태, 취재원 발언 형태, 취재원 발언 내용 등을 측정하였다. 후보자 영상 관련으로는 후보자 영상 등장 여부, 후보자 영상 노출 순서, 후보자 영상 노출 시간, 후보자

영상 등장 형태, 후보자 발언 내용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채널A의 보도는 균형성 측면에서 양적 중립, 기계적 중립을 잘 실현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불균형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취재원 또는 정보 출처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일반 사회기사의 보도 관행을 따라 사건 중심으로 스트레이트 형 선거기사를 구성하여 심층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포맷과 내용으로 선거보도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홍성철 외(2021.1)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루어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TV조선이 방송한 76건의 선거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뉴스 아이템의 유형, 뉴스 아이템의 성격(정치, 비정치), 아이템의 편향성(정치 관련 이슈), 앵커 브릿지 제시방식, 앵커 브릿지 멘트의 편향성, 기자 리포트 제시 방식, 취재원 제시 형태, 기자 리포트의 내용 차원, 기자 리포트 내용 구성 방식, 기자 리포트 중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 기자 리포트 중 사회·경제적 비리나 문제 보도, 취재 대상자에 대한 반론 제공 여부, 기자 리포트·앵커 브리핑 내용의 편향성, 인터뷰이의 수와 첫 번째 인터뷰이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뉴스 내용을 선거판세 분석, 선거전략 분석, 여당과 야당의 선거전략, 인물 분석, 선거유세 스케치, 정책·공약 분석, 투표·개표 현황 및 결과, 선거 일반, 공천 갈등, 기타 등 9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시간 배분의 균등성, 총선 보도의 편향성을 측정하였다. 시간 배분의 균등성은 시간적 배분으로 볼 때 여당 및 야당 등 주로 보도한 쪽을 확인하였다. 총선 보도의 편향성은 대체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여당이나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내용인지 아니면 비판적인 내용인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보도에서는 선거유세 스케치 보도가 7~9%로 가장 많았다. 시간배분에서는 균형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의 편향성에서는 여권/야권에 동일하게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 균형 유지 혹은 분류하기 어려운 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간접적으로) 야당/야권에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내용 혹은 대체로 정부/여권에 비판적인 내용의 비중이 8.6%로 KBS(1.6%), MBC(3.8%)에 비해 높았다.

홍성철 외(2022.1)는 2021년 4월 7일에 치루어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울산 남구청장, 의령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대한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치러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중심으로 선거보도를 분석하였다. 선거 관련 아이템을 다룬 기자 리포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시간 배분의 편향성, 내용의 편향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선거판세 분석, 선거전략 분석, 인물 분석, 선거유세 스케치, 정책·공약 분석, 투표·개

표 현황 및 결과, 선거 일반, 공천갈등, TV토론,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TV조선과 KBS, MBC 등 3사의 선거보도 289건을 분석하였는데, TV조선이 128건, KBS가 70건, MBC는 91건이었다. 3사 공통으로 선거전략 분석이 5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선거보도 시간 배분은 TV조선은 야권에 할애하는 비중이 36.7%로 높았다. 선거 아이템을 다루는 기자리포트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내용이 184건(6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TV조선은 야권에 우호적인 보도, KBS와 MBC는 여권에 우호적인 보도의 비중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치루어진 두 건의 선거에 대한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2022년 2월 15일 ~ 3월 8일)과 투표일(2022년 3월 9일.),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2022년 5월 19일 ~ 5월 31일)과 투표일(2022년 6월 1일)에 MBN이 방송한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정성을 평가하였다.

3. 공정성 분석 방법

보도의 공정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특정 기간에 방송된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또는 평가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이며, 후자는 정성적인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구체화하고, 각 개념들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측정 항목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할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두 방법의 장단점을 우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충족 요건이라는 주장이 있다(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2021.12). 그리고 노동렬・조아라(2022.1.)도 이해당사자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시간의 방송을 보장하는 기계적 균형을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기자의 주관성이 기계적인 균형보다 더 공정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측정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구현된 공정성과의 연관성이 모호한 경우가 발견된다. 일례로 선거방송에서 양 측이 무게가 다른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에 대하여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 이슈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Kovach & Rosenstiel, 2001).

또한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인터뷰이의 순서가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양 측에 대한 보도기사를 한 건씩 방송했을 때에, 하나는 비판하는 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우호적인 내용이라면 기계적인 균형은 맞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계위와 내용이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종합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공정성에 대한 정량화된 결과를 신뢰하거나, 실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노정된다.

기계적인 균형에 대해 조항제(2019)는 방송이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방송사들에게 전략적인 방어기제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2021.12). 이런 맥락에서 방송사들이 최근에는 형식적, 산술적인 공정성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으나, 방송사들의 교묘한 편들기가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홍성철 외, 2021.1). 종합편성 채널들이 이런 언론 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중립성에 기반한 평가가 방송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공정성보다는 내용적인 공정성을 측정하는 것이 공정성의 평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홍성철 외(2021.1)는 방송의 공정성의 정의부터 각자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의 가치는 개별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노출되면서 장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희락・황성연, 2022.1). 그러므로 각자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대중이 합의하기 어려운 정량적인 틀을 적용하여 평가하기보다는, 방송의 소비자인 시청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한 연구들 중에서 다수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기계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나, 김관규 외(2021.1), 이만제(2022.1), 전희락・황성연(2022.1) 등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MBN이 제공한 선거에 대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묻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4. 측정 항목의 도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질문할 문항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기자가 취재한 뉴스 기사와 앵커의 브릿지 멘트(bridge ment) 등 방송사 내부자들에 의해 주로 구성되는 뉴스 프로그램은 데스크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기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방송사의 성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패널의 숫자가 진행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다수를 차지하며, 발언 시간의 측면에서도 비중이 훨씬 크다. 그리고 역할 측면에서도 진행자는 중재 혹은 패널에 대한 발언 유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 발표를 위해 출연한 패널에 비해 견해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는 패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런데 패널은 외부인이므로 방송사가 통제나 제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선행연구들 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보수와 진보간 패널 수의 불균형, 패널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이만제, 2022.1). 또한 패널간 토론이나 패널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공정성 평가에 포함시킨 연구도 있다(홍성철 외, 2021.1; 전희락・황성연, 2022.1). 그러므로 공정성 측정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형태나 특성에 따라 측정 문항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설문 문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성의 5가지 하위 개념인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에 부합하도록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답변에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중에서 선택을 요구받는다.

가. 뉴스 프로그램 조사 항목

MBN은 2022년 현재 총 5개의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주중에는 ‘굿모닝 MBN’, ‘MBN 뉴스7’, 그리고 ‘전국네트워크뉴스’ 등 3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주말에는 ‘MBN 뉴스와이드 주말’과 ‘MBN 뉴스센터’를 방송한다.

[그림1] 2022년 현재 MBN이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 현황

		
굿모닝 MBN	MBN 뉴스7	전국네트워크뉴스
주중 07:00-08:00	주중 19:00~20:10	주중 09:20-09:30

	
MBN 뉴스와이드 주말	MBN 뉴스센터
토 15:30-17:00	주말 19:30~20:20

※ 출처 : MBN 홈페이지(www.mbn.co.kr)

뉴스 선거보도의 진실성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뉴스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등이다.

균형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뉴스 프로그램은 보도량(기사 수, 보도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인터뷰이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이다.

중립성은 기자와 진행자(앵커)의 논조에 대해 질문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기자의 논조에 대해 응답자에게 ’평균적으로 ①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②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③중립적이었다, ④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⑤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중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그리고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논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선택을 요구한다. 여기서 ‘정부/여당/여권’은 선거시기를 기준으로 민주당을 의미하며, ‘야당/야권’은 국민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당제이지만 실제 선거 국면에서는 양당제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대선기간 동안 뉴스 제작자는 주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경쟁 양상을 뉴스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원희영・운석민, 2015),). 그러므로 거대 양당 위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양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뉴스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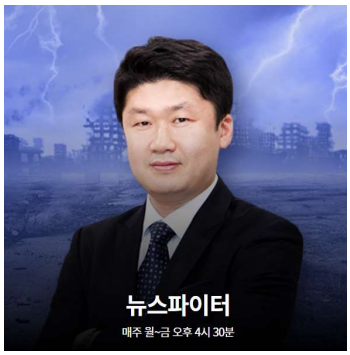
적절성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뉴스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MBN 뉴스 프로그램들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MBN의 선거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종합적인 신뢰도, 종합적인 품질, 그리고 종합적인 공정성을 5점 척도로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타 방송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평소 시청하는 TV 뉴스채널들을 먼저 질문한 후, 응답한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공정성을 5점 척도로 물었다.

나. 시사 프로그램 조사 항목

MBN은 2022년 현재 총 5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주중에는 ‘뉴스파이터’, ‘MBN 프레스룸’, ‘아침&매일경제’, ‘MBN 뉴스와이드’ 등 4개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일요일에는 ‘시사스페셜’을 방송한다.

[그림2] 2022년 현재 MBN이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현황

<table>
<tr><td>
</td><td>
</td></tr>
<tr><td>뉴스파이터
주중 16:30-17:50</td><td>MBN프레스룸
주중 15:20-16:30</td></tr>
<tr><td>
</td><td>
</td></tr>
<tr><td>아침&매일경제
주중 08:00-09:20</td><td>MBN 뉴스와이드
주중 17:50-19:00</td></tr>
<tr><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시사 스페셜
일 15:30-17:00</td></tr>
</table>

※ 출처 : MBN 홈페이지(www.mbn.co.kr)

진실성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사실관계(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오보일 경우에 정정하였다’ 이다.

균형성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MBN 시사 프로그램은 방송량(아이템 수, 방송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패널들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의 수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이다.

중립성은 진행자와 패널의 논조에 대해 묻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MBN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논조에 대해 ‘평균적으로 ①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②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③중립적이었다 ④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⑤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의견의 표현 강도가 더 커서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는 패널의 논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양성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거관련 이슈를 충실하게 다루었다’ 이다.

적절성은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다.

마지막으로 MBN 시사 프로그램들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종합적인 신뢰도, 종합적인 품질, 그리고 종합적인 공정성을 5점 척도로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타 방송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평소에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TV채널들을 먼저 질문한 후, 응답한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공정성

을 5점 척도로 물었다.

추가로 종합편성 채널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이나 인식이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진보에서 보수까지 5단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리고 MBN의 시사 프로그램과 보도 프로그램을 각각 1주일에 한번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이를 식별하는 문항도 추가하였다.

5. 설문조사 시행

설문조사는 2022년 11월 21일 ~ 11월 24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투표가 가능한 만 18세부터 만 69세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총 530개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는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인구통계를 토대로 성, 연령, 지역별로 사전에 할당하였다. 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수행하였고, 표본에 대한 다양한 인구통계 정보가 <표7>에 나타나 있다.

<표6> 설문조사 표본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 69세 응답자 500명
표본추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패널 조사
조사기간	2022년 11월 21일 ~ 11월 24일

<표7> 응답자의 인구통계변수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자	266	50.2%
	여자	264	49.8%
연령	만18~29세	100	18.9%
	만30~39세	97	18.3%
	만40~49세	111	20.9%
	만50~59세	119	22.5%
	만60~69세	103	19.4%

지역	서울	104	19.6%
	부산	32	6.0%
	대구	22	4.2%
	인천	30	5.7%
	광주	15	2.8%
	대전	18	3.4%
	울산	10	1.9%
	경기	143	27.0%
	강원	17	3.2%
	충북	16	3.0%
	충남	21	4.0%
	전북	17	3.2%
	전남	18	3.4%
	경북	26	4.9%
	경남	31	5.8%
	제주	10	1.9%
소득	100만원 이하	24	4.5%
	101만원~200만원	33	6.2%
	201만원~300만원	81	15.3%
	301만원~400만원	82	15.5%
	401만원~500만원	80	15.1%
	501만원~600만원	78	14.7%
	601만원~700만원	50	9.4%
	701만원 이상	102	19.2%
학력	중졸이하	8	1.5%
	고졸	122	23.0%
	대재/대졸	343	64.7%
	대학원재/대학원졸	57	10.8%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	13	2.5%
	약간 보수적	119	22.5%
	중도적	298	56.2%
	약간 진보적	91	17.2%
	매우 진보적	9	1.7%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방송사에 대한 평가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갈라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이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6.2%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32명으로 25%를 차지하였다.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00명으로 18.9%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중도층의 비중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과를 찾기가 어려운데, 설문조사를 통해 2022년에 37.5%라고 밝힌 자료가 있다(이삼섭, 2022.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의 참여자들은 중도층의 비중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V.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평가

1.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분석

설문조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타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현황도 조사하였다. 이들 중 KBS 뉴스 시청자의 비중이 86.6%로 가장 높았고, SBS(85.5%), jtbc(83.4%), MBC(83.2%), YTN(82.8%)의 순으로 나타났다. TV조선(71.9%), 채널A(72.8%), 연합뉴스TV(73.6%) 등은 시청자의 비중이 낮았다.

<표8> 1주일에 1회 이상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TV채널

항목		응답자 수	비율
MBN		530	100.0%
지상파	KBS	459	86.6%
	MBC	441	83.2%
	SBS	453	85.5%
종편	TV조선	381	71.9%
	jtbc	442	83.4%
	채널A	386	72.8%
보도전문	연합뉴스TV	390	73.6%
	YTN	439	82.8%

그리고 MBN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빈도는 매일 시청하는 응답자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2 ~ 3일에 한번 시청하는 응답자가 3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설문조사가 MBN 뉴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표9> MBN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 빈도

시청 주기	응답자 수	비율
매일	247	46.6%
2-3일에 한 번	181	34.2%
3-4일에 한 번	62	11.7%
일주일에 한 번	40	7.5%

가. 진실성

진실성을 측정하는 세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모두 3.60 ~ 3.80 사이로 나타나, 중간 값인 3점을 넘었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72 ~ 76점에 해당한다. 세 문항 중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가 3.8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의 분산이 0.69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판단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MBN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도 3.71점을 받아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의 분산은 0.675로 세 항목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판단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MBN 뉴스 프로그램은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에 대해서는 3.6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와 0.822의 큰 분산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MBN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오보를 하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선거 시국에 시청자들이 오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10>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뉴스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5) 매우그렇다	79	14.9	3.71	0.675
	4) 조금그렇다	259	48.9		
	3) 그저그렇다	157	29.6		
	2) 별로그렇지 않다	30	5.7		
	1) 전혀그렇지 않다	5	.9		
o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	5) 매우그렇다	82	15.5	3.60	0.822
	4) 조금그렇다	219	41.3		
	3) 그저그렇다	173	32.6		
	2) 별로그렇지 않다	48	9.1		
	1) 전혀그렇지 않다	8	1.5		
o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5) 매우그렇다	103	19.4	3.80	0.698
	4) 조금그렇다	252	47.5		
	3) 그저그렇다	144	27.2		
	2) 별로그렇지 않다	27	5.1		
	1) 전혀그렇지 않다	4	.8		

분석의 다음 단계로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응답을 세부 집단별로 나누고, 응답의 평균값이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복수의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단일변량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다. 이 때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문항들의 응답을 종속변수로 삼고, 응답자의 성, 연령, 가구 월 소득, 학력, 정치 성향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은 20대(10대 후반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등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가구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에서 701만원 이상 사이에서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총 여덟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및 졸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매우 진부적 등 다섯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ANOVA를 통해 집단들 사이의 표본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후, 만약 검정통계량 F-값이 임계치보다 커서 집단들의 평균이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사후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즉, 세부 집단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평균값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Scheffe’와 ‘Duncan’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ANOVA는 세부 집단들 사이에서 분산의 동질성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산의 동질성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ANOVA 대신 ‘Welch’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은 많이 사용되는 ‘Games-Howell’을 사용하였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과 학력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분산의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다섯 항목들에 대해 ANOVA 또는 Welch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집단들 사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후분석을 수행하여 20대 집단이 50대와 60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즉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50대와 60대가 20대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이다.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 문항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분산의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ANOVA 또는 Welch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과 학력 집단들 사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을 통해 20대 집단이 40대와 50대, 60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즉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재 혹은 대졸 집단이 중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문항에서는 소득과 학력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분산의 동질성이 만족되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ANOVA 또는 Welch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집단들 사이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해 20대 집단이 40대와 50대, 60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즉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뉴스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3 항목 모두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20대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MBN이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소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뉴스 프로그램에서 젊은 세대의 수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성향에 따른 진실성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MBN이 뉴스의 진실성 측면에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고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11>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뉴스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Welch		
			F값	P	사후분석 (Scheffe·Duncan /Games-Howell)
o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성별	0.124 (0.725)	2.132	0.145	
	연령	5.377** (0.000)	5.087**	0.001	20대<50대&60대
	소득	0.623 (0.737)	0.765	0.617	
	학력	4.562** (0.004)	2.616	0.068	
	정치성향	0.623 (0.646)	1.463	0.212	
o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	성별	3.692 (0.055)	0.040	0.841	
	연령	0.040 (0.997)	2.678*	0.031	20대<40대&50대&60대 (Duncan)
	소득	1.094 (0.365)	1.073	0.380	
	학력	1.376 (0.249)	2.868*	0.036	대졸<중졸(Duncan)
	정치성향	2.925* (0.021)	1.042	0.399	
o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성별	0.000 (0.986)	1.481	0.224	
	연령	4.940 (0.001)	7.031**	0.000	20대<40대&50대&60대
	소득	3.044** (0.004)	1.599	0.139	
	학력	5.465** (0.001)	2.684	0.063	
	정치성향	0.237 (0.918)	0.765	0.549	

나. 균형성

뉴스의 균형성을 측정하는 네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모두 3.49 ~ 3.61 사이로 나타나, 중간 값인 3점을 넘었다. 그러나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평균값 3.60 ~ 3.80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70 ~ 72점에 해당한다. 분산은 0.820 ~ 0.940으로, 진실성에 대한 분산 0.675 ~ 0.822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커짐을 의미한다.

네 문항 중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은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가 3.61로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의 분산은 0.820으로 카테고리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동의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MBN은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골고루 보도하는 데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MBN 뉴스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와 'MBN 뉴스 프로그램은 인터뷰이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의 평균값이 3.55점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터뷰이에 대한 응답의 분산은 0.85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자료화면에 대해서는 0.940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 사이에서 평가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보도량(기사 수, 보도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49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분산은 0.893로 비교적 컸다.

요약하면 MBN은 기사 내에서 보도량, 자료화면, 인터뷰이 등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으나, 기사의 수나 보도 시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MBN은 기사 편성에서 형식적인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제기된다.

뉴스의 균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성, 연령, 가구 월 소득, 학력, 정치 성향에 따라 집단화하고, 세부 집단들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후분석도 수행하였다.

'보도량(기사 수, 보도 시간 등)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에 대한 응답은 다섯 가지 독립변수 항목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ANOV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집단들 사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해 20대가 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

‘자료 화면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문항에서도 모든 독립변수 항목에서 세부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ANOV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집단들 사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해 20대 집단이 50대와 60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뉴스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두 항목에서 연령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집단별 세부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12> 뉴스의 균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뉴스 프로그램은 ~		응답자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보도량(기사 수, 보도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5) 매우그렇다	74	14.0	3.49	0.893
	4) 조금그렇다	201	37.9		
	3) 그저그렇다	177	33.4		
	2) 별로그렇지 않다	69	13.0		
	1) 전혀그렇지 않다	9	1.7		
o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5) 매우그렇다	90	17.0	3.55	0.940
	4) 조금그렇다	193	36.4		
	3) 그저그렇다	180	34.0		
	2) 별로그렇지 않다	54	10.2		
	1) 전혀그렇지 않다	13	2.5		
o 인터뷰이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5) 매우그렇다	78	14.7	3.55	0.853
	4) 조금그렇다	206	38.9		
	3) 그저그렇다	184	34.7		
	2) 별로그렇지 않다	52	9.8		
	1) 전혀그렇지 않다	10	1.9		
o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	5) 매우그렇다	86	16.2	3.61	0.820
	4) 조금그렇다	211	39.8		
	3) 그저그렇다	183	34.5		
	2) 별로그렇지 않다	41	7.7		
	1) 전혀그렇지 않다	9	1.7		

<표13> 뉴스의 균형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뉴스 프로그램은 ~		Levene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보도량(기사 수, 보도 시간 등)이 한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	2.593 (0.108)	0.019	0.890	
	연령	0.556 (0.694)	3.670**	0.006	20대<60대
	소득	0.990 (0.437)	1.279	0.259	
	학력	0.717 (0.542)	1.769	0.152	
	정치성향	1.403 (0.232)	1.273	0.280	
o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	0.446 (0.504)	0.387	0.534	
	연령	1.200 (0.310)	2.657*	0.032	20대<50대&60대(Duncan)
	소득	0.534 (0.809)	1.102	0.361	
	학력	0.593 (0.620)	1.290	0.277	
	정치성향	0.715 (0.582)	1.286	0.275	
o 인터뷰이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	2.028 (0.155)	0.263	0.609	
	연령	1.102 (0.355)	2.013	0.091	
	소득	0.481 (0.848)	0.880	0.522	
	학력	3.073* (0.027)	2.804	0.056	
	정치성향	0.947 (0.436)	1.830	0.122	
o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	성별	1.935 (0.165)	0.502	0.479	
	연령	1.524 (0.194)	1.979	0.096	
	소득	0.772 (0.611)	0.759	0.622	
	학력	1.803 (0.146)	1.698	0.166	
	정치성향	1.621 (0.167)	1.544	0.188	

다. 중립성

뉴스의 중립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2.79 ~ 2.85로 나타나, 중간값인 3점을 밑돌았다. 3점을 기준으로 0.15 ~ 0.21점의 편향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3.75 ~ 5.25에 해당한다. 3점 이하는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인 경향'을 의미하므로, 민주당 또는 민주당 정권에 조금 우호적이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분산은 0.563 ~ 0.651로 나타났다.

'진행자의 논조'의 중립성은 2.85점으로 기자의 논조 2.79에 비해 중립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도 0.563으로 기자의 논조 0.651에 비해 낮았다.

그러므로 MBN의 뉴스 프로그램은 선거방송 기간 동안 여당 및 정부에 다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진행자보다는 기자에게 더 강했던 것으로 시청자들이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14> 뉴스의 중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뉴스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기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34	6.4	2.79	0.651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127	24.0		
	3) 중립적이었다	292	55.1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68	12.8		
	5)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9	1.7		
o 진행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4	4.5	2.85	0.563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114	21.5		
	3) 중립적이었다	314	59.2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71	13.4		
	5)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7	1.3		

뉴스의 중립성에 대한 두 문항을 세부 집단별로 분류하여 응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ANOVA 또는 Welch 분석 수행한 결과 기자의 논조에 대해서는 성, 연령, 소득, 학력,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행자의 논조에 대해서는 연령 집단들 사이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분석을 통해 20대 집단이 30대에 비해

0.309 만큼 많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MBN의 뉴스 프로그램이 당시의 야권에 대해 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뉴스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 중에서도 특히 20대(10대 후반 포함)가 중립성의 강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15> 뉴스의 중립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뉴스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기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성별	0.997 (0.318)	2.052	0.153	
	연령	4.365** (0.002)	1.553	0.187	
	소득	2.419* (0.019)	1.011	0.425	
	학력	0.944 (0.419)	1.214	0.304	
	정치성향	3.891** (0.004)	0.157	0.959	
o 진행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성별	0.947 (0.331)	2.050	0.153	
	연령	3.472** (0.008)	2.650*	0.034	20대>30대
	소득	2.995** (0.004)	0.723	0.653	
	학력	1.449 (0.228)	0.322	0.809	
	정치성향	4.759** (0.001)	0.474	0.754	

라. 다양성

뉴스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네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모두 3.37 ~ 3.63으로 나타났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7 ~ 73점에 해당한다. 분산은 0.734 ~ 0.915로 평균값과 분산 공히 균형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네 문항 중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가 3.63으로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의 분산도 0.73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동의

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MBN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MBN 뉴스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가 3.59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MBN은 방송의 다양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성의 구현 측면에서 다소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MBN 뉴스 프로그램은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와 ‘MBN 뉴스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두 문항에 대해서는 3.48과 3.37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16> 뉴스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뉴스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5) 매우그렇다	69	13.0	3.63	0.734
	4) 조금그렇다	250	47.2		
	3) 그저그렇다	162	30.6		
	2) 별로그렇지 않다	42	7.9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5) 매우그렇다	57	10.8	3.37	0.915
	4) 조금그렇다	192	36.2		
	3) 그저그렇다	186	35.1		
	2) 별로그렇지 않다	81	15.3		
	1) 전혀그렇지 않다	14	2.6		
o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5) 매우그렇다	83	15.7	3.59	0.840
	4) 조금그렇다	214	40.4		
	3) 그저그렇다	172	32.5		
	2) 별로그렇지 않다	54	10.2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o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	5) 매우그렇다	70	13.2	3.48	0.866
	4) 조금그렇다	197	37.2		
	3) 그저그렇다	188	35.5		
	2) 별로그렇지 않다	66	12.5		
	1) 전혀그렇지 않다	9	1.7		

결론적으로 MBN의 선거보도는 다양한 내용, 지역성 구현 등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되, 유권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뉴스의 다양성에 대하여 세부 집단들 사이의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 뉴스 항목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유권자 대변은 소득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약자 문항에서는 20대가 나머지 전 연령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지역에 대해서는 20대가 60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20대의 비관적인 답변이 부각된다. 유권자 대변은 200만원 대와 500만원 대가 100만원 이하와 600만원 대의 가구소득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뉴스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20대의 부정적인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특이하게 국민인 유권자의 의견 대변 부문에서는 소득 집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17> 뉴스의 다양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뉴스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성별	0.026 (0.873)	0.451	0.502	
	연령	2.305 (0.057)	1.360	0.246	
	소득	2.330* (0.024)	1.275	0.265	
	학력	1.359 (0.254)	0.634	0.593	
	정치성향	1.876 (0.113)	1.767	0.134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성별	0.125 (0.724)	1.590	0.208	
	연령	1.394 (0.235)	2.857*	0.023	20대<30대&40대&50대&60대(Duncan)
	소득	0.952 (0.466)	1.107	0.357	
	학력	0.579 (0.629)	0.753	0.521	
	정치성향	0.921 (0.451)	1.732	0.141	
o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성별	3.431 (0.065)	1.661	0.198	
	연령	2.303 (0.058)	3.404**	0.009	20대 < 60대
	소득	1.559 (0.145)	0.932	0.481	
	학력	2.493 (0.059)	2.164	0.091	
	정치성향	2.178 (0.070)	0.771	0.545	
o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	성별	3.802 (0.052)	0.034	0.854	
	연령	0.166 (0.956)	1.876	0.113	
	소득	1.106 (0.358)	2.297*	0.026	200만원대&500만원대<100만원이하&600만원대(Duncan)
	학력	0.581 (0.628)	1.989	0.115	
	정치성향	0.571 (0.684)	0.462	0.764	

마. 적절성

뉴스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이 3.48 ~ 3.67로 나타났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70 ~ 73점에 해당한다. 분산은 0.785 ~ 0.825로 타 문항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 중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은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가 3.67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답변의 분산도 0.785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응답자들 사이에 동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MBN 뉴스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가 3.4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MBN은 선거방송 기간 동안 적절한 정보를 뉴스에 담았으나,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MBN은 선거기간 동안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하면 선거 관련 기사의 양을 늘리는 노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표18> 뉴스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뉴스 프로그램은 ~		응답자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5) 매우그렇다	60	11.3	3.48	0.825
	4) 조금그렇다	212	40.0		
	3) 그저그렇다	190	35.8		
	2) 별로그렇지 않다	56	10.6		
	1) 전혀그렇지 않다	12	2.3		
o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	5) 매우그렇다	87	16.4	3.67	0.785
	4) 조금그렇다	233	44.0		
	3) 그저그렇다	168	31.7		
	2) 별로그렇지 않다	32	6.0		
	1) 전혀그렇지 않다	10	1.9		

뉴스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 대해 세부 집단들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적절한 정보 문항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충분성 항목에서는 20대가 40대, 50대, 60대와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뉴스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20대의 부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었다.

<표19> 뉴스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뉴스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		
			F값	P	사후분석
o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성별	0.506 (0.477)	1.004	0.317	
	연령	0.710 (0.585)	2.696*	0.030	20대<40대 &50대&60대(Duncan)
	소득	0.826 (0.566)	1.943	0.061	
	학력	0.714 (0.544)	1.121	0.340	
	정치성향	1.417 (0.227)	0.287	0.887	
o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	성별	0.558 (0.455)	0.013	0.909	
	연령	3.187* (0.013)	1.717	0.146	
	소득	3.095** (0.003)	2.034	0.054	
	학력	2.233 (0.084)	2.226	0.084	
	정치성향	1.352 (0.250)	1.011	0.401	

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설문조사로 확보한 응답의 평균값을 공정성의 하위 개념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20>에 나타나 있다. 다섯 가지 개념 중에서 진실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균형성과 적절성, 다양성이 비슷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MBN의 뉴스 프로그램은 진실성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립성은 중간 값인 3.0에서 평균 0.15 ~ 0.21 여당 우호적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모형의 하위 개념별 평균값

공정성 하위 개념	문항 수	평균값	분산
진실성	3	3.60~3.80	0.675~0.822
균형성	4	3.49~3.61	0.820~0.940
중립성	2	2.79~2.85	0.563~0.651
다양성	4	3.37~3.63	0.734~0.915
적절성	2	3.48~3.67	0.785~0.825

한편,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신뢰도, 품질, 그리고 공정성을 각각 5점 척도로 물었다. 종합적인 만족도가 3.54로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고, 이를 실현하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신뢰도, 품질, 공정성은 3.46 ~ 3.48의 점수를 받았다.

MBN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세부 집단 사이의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였다.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는 20대가 60대에 비해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품질에 대해서는 대재 및 대졸 집단이 중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매우 진보 계층이 매우 보수 계층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보와 보수의 양 극단 성향은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진보 계층이 약간 보수 계층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즉 보수 계층이 MBN의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인데, 응답자 가운데 약간 보수와 약간 진보의 비중이 크므로 신뢰성이 있는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치 성향에 따라 MBN 뉴스의 종합적인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이 실증되었으며, MBN 뉴스는 보수 계층에게 더욱 소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1> MBN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종합적인 만족도	5) 매우그렇다	58	10.9	3.54	0.748
	4) 조금그렇다	240	45.3		
	3) 그저그렇다	170	32.1		
	2) 별로그렇지 않다	56	10.6		
	1) 전혀그렇지 않다	6	1.1		
o 종합적인 신뢰도	5) 매우그렇다	51	9.6	3.46	0.771
	4) 조금그렇다	222	41.9		
	3) 그저그렇다	188	35.5		
	2) 별로그렇지 않다	60	11.3		
	1) 전혀그렇지 않다	9	1.7		
o 종합적인 품질	5) 매우그렇다	42	7.9	3.48	0.673
	4) 조금그렇다	228	43.0		
	3) 그저그렇다	210	39.6		
	2) 별로그렇지 않다	40	7.5		
	1) 전혀그렇지 않다	10	1.9		
o 종합적인 공정성	5) 매우그렇다	52	9.8	3.47	0.760
	4) 조금그렇다	220	41.5		
	3) 그저그렇다	195	36.8		
	2) 별로그렇지 않다	53	10.0		
	1) 전혀그렇지 않다	10	1.9		

<표22> MBN 뉴스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Levene 통계량	ANOVA/Welch		
			F값	P	사후분석 (Scheffe/)
o 종합적인 만족도	성별	4.576* (0.033)	0.127	0.722	
	연령	2.988* (0.019)	3.294*	0.012	20대 < 60대
	소득	0.887 (0.516)	0.823	0.569	
	학력	2.499 (0.059)	2.556	0.055	
	정치성향	3.017* (0.018)	2.529	0.056	
o 종합적인 신뢰도	성별	0.087 (0.768)	0.122	0.727	
	연령	1.840 (0.120)	3.440**	0.009	20대 < 60대
	소득	0.767 (0.615)	0.512	0.826	
	학력	1.599 (0.189)	2.289	0.078	
	정치성향	0.986 (0.415)	2.149	0.074	
o 종합적인 품질	성별	3.029 (0.082)	0.139	0.709	
	연령	3.132* (0.015)	2.352	0.055	
	소득	0.858 (0.540)	1.467	0.176	
	학력	1.638 (0.180)	2.886*	0.035	대졸<중졸(Duncan)
	정치성향	1.291 (0.272)	2.577*	0.037	매우보수<매우진보(Duncan)
o 종합적인 공정성	성별	0.764 (0.053)	0.639	0.424	
	연령	0.399 (0.809)	1.713	0.146	
	소득	0.710 (0.664)	0.824	0.568	
	학력	2.121 (0.097)	1.545	0.202	
	정치성향	2.094 (0.080)	3.402*	0.009	약간보수>약간진보

사. 타 방송 채널과의 비교

MBN과 타 TV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평소 시청하는 TV 뉴스 채널을 질문하고, 응답한 채널에서 제공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공정성을 5점 척도로 물었다. 조사 결과 지상파방송인 B와 C, 유료방송 PP인 G사가 3.62 ~ 3.63으로 공정성 부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와 A, E사가 3.55 ~ 3.60으로 뒤를 따랐다. 종합편성 채널인 D와 F사는 3.29 ~ 3.35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MBN의 종합적인 공정성 3.47은 종편 4채널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사나 보도전문 PP와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3> 평소에 시청하는 타 TV채널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방송사		평균값	분산
지상파	A	3.56	0.807
	B	3.63	1.069
	C	3.62	0.820
종편	D	3.29	1.175
	E	3.55	0.749
	F	3.35	0.899
보도전문	G	3.62	0.749
	H	3.60	0.733

2.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MBN의 시사 프로그램을 최소한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타 TV방송사가 제공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현황도 조사하였다. KBS를 시청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80.4%로 가장 높았고, jtbc(80.2%), SBS(76.8%), MBC(7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자의 수나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4> 1주일에 1회 이상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TV채널

항목		응답자 수	비율
	MBN	530	100.0%
지상파	KBS	426	80.4%
	MBC	397	74.9%
	SBS	407	76.8%
종편	TV조선	362	68.3%
	jtbc	425	80.2%
	채널A	367	69.2%
보도전문	연합뉴스TV	326	61.5%
	YTN	355	67.0%

그리고 MBN이 제공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 빈도는 매일 시청하는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2 ~ 3일에 한 번 시청하는 응답자가 3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살문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표25> MBN의 시사 프로그램 시청 빈도

시청 주기	응답자 수	비율
매일	217	40.9%
2-3일에 한 번	163	30.8%
3-4일에 한 번	92	17.4%
일주일에 한 번	58	10.9%

가. 진실성

시사 프로그램의 진실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이 3.56 ~ 3.62로 나타나 중간값인 3점을 넘었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71 ~ 72점에 해당한다. 두 문항 중에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사실관계(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였다’가 3.6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의 분산이 0.686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동의한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므로 MBN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MBN 시사 프로그램은 오보일 경우에 정정하였다’는 3.56점을 받았다. 이 항목의 분산은 0.780으로 두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므로 MBN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만약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6> 시사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시사 프로그램은 ~		응답자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사실관계(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5) 매우그렇다	65	12.3	3.62	0.686
	4) 조금그렇다	246	46.4		
	3) 그저그렇다	179	33.8		
	2) 별로그렇지 않다	33	6.2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o 오보일 경우에 정정하였다	5) 매우그렇다	68	12.8	3.56	0.780
	4) 조금그렇다	225	42.5		
	3) 그저그렇다	178	33.6		
	2) 별로그렇지 않다	52	9.8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시사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응답자의 성, 연령, 가구 월 소득, 학력, 정치 성향에 따라 구분하고, 세부 집단들 사이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후 필요한 경우에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에 대한 응답에서는 세부 집단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상이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보일 경우에 정정하였다’ 문항에서는 연령과 정치성향에 따라 집단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해 20대 집단이 60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즉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 약간 진보적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MBN 시사프로그램은 진실성 측면에서 60대와 약간 보수적인 집단

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와 약간 진보 계층을 고루 아우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27> 시사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시사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Welch		
			F값	P	사후분석
o 사실관계(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성별	1.098 (0.295)	0.262	0.609	
	연령	0.577 (0.679)	1.931	0.104	
	소득	1.852 (0.075)	0.836	0.558	
	학력	3.380* (0.018)	0.872	0.466	
	정치성향	1.690 0.151	1.151	0.332	
o 오보일 경우에 정정하였다	성별	1.951 (0.163)	0.466	0.495	
	연령	0.493 (0.741)	3.110*	0.015	20대<60대 (Duncan)
	소득	1.083 (0.372)	0.855	0.542	
	학력	0.686 (0.561)	1.194	0.311	
	정치성향	3.185* (0.013)	3.047*	0.028	약간보수>약간진보

나. 균형성

시사 프로그램의 균형성을 측정하는 다섯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모두 3.47 ~ 3.59로 나타나, 3점을 넘었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9 ~ 72점에 해당한다. 분산은 0.742 ~ 0.828로, 진실성에 대한 분산 0.686 ~ 0.780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다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문항 중에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패널들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가 3.5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산은 0.77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동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MBN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양 측의 패널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28> 시사 프로그램의 균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시사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방송량(아이템 수, 방송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5) 매우그렇다	59	11.1	3.47	0.809
	4) 조금그렇다	210	39.6		
	3) 그저그렇다	190	35.8		
	2) 별로그렇지 않다	62	11.7		
	1) 전혀그렇지 않다	9	1.7		
o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5) 매우그렇다	73	13.8	3.52	0.810
	4) 조금그렇다	196	37.0		
	3) 그저그렇다	198	37.4		
	2) 별로그렇지 않다	57	10.8		
	1) 전혀그렇지 않다	6	1.1		
o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패널들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5) 매우그렇다	82	15.5	3.59	0.779
	4) 조금그렇다	204	38.5		
	3) 그저그렇다	194	36.6		
	2) 별로그렇지 않다	45	8.5		
	1) 전혀그렇지 않다	5	.9		
o 패널의 수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5) 매우그렇다	74	14.0	3.53	0.828
	4) 조금그렇다	202	38.1		
	3) 그저그렇다	191	36.0		
	2) 별로그렇지 않다	55	10.4		
	1) 전혀그렇지 않다	8	1.5		
o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5) 매우그렇다	64	12.1	3.51	0.742
	4) 조금그렇다	202	38.1		
	3) 그저그렇다	208	39.2		
	2) 별로그렇지 않다	51	9.6		
	1) 전혀그렇지 않다	5	.9		

그리고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의 수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등이 3.51 ~ 3.53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MBN 시

사 프로그램은 방송량(아이템 수, 방송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는 3.47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MBN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패널과 자료화면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이템의 수나 방송 시간 등 방송량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으므로 편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시사 프로그램의 균형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응답자의 성, 연령, 가구 월 소득, 학력, 정치 성향에 따라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NOVA를 통해 자료화면에 대하여 학력 집단간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는 Scheffe나 Duncan 등의 사후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에 대한 평가는 집단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9> 시사 프로그램의 균형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시사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방송량(아이템 수, 방송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	1.062 (0.303)	0.060	0.807	
	연령	0.457 (0.767)	1.414	0.228	
	소득	1.318 (0.239)	0.697	0.675	
	학력	0.825 (0.480)	2.151	0.093	
	정치성향	1.987 (0.095)	1.451	0.216	
o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	0.727 (0.394)	0.010	0.922	
	연령	0.378 (0.825)	0.687	0.601	
	소득	1.471 (0.175)	0.512	0.826	
	학력	0.711 (0.546)	3.033*	0.029	
	정치성향	3.527** (0.007)	1.999	0.114	
o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패널들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별	8.040** (0.005)	0.000	0.993	
	연령	0.325 (0.861)	2.160	0.072	

	소득	0.291 (0.957)	0.992	0.436	
	학력	2.865* (0.036)	2.406	0.086	
	정치성향	0.264 (0.901)	2.314	0.056	
o 패널의 수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	3.658 (0.056)	0.225	0.635	
	연령	0.356 (0.840)	1.435	0.221	
	소득	0.818 (0.573)	0.699	0.673	
	학력	1.685 (0.169)	2.252	0.081	
	정치성향	2.024 (0.090)	2.073	0.083	
o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성별	8.779** (0.003)	0.000	0.999	
	연령	1.033 (0.389)	1.065	0.373	
	소득	1.654 (0.118)	1.377	0.212	
	학력	2.869* (0.036)	0.499	0.685	
	정치성향	3.494** (0.008)	1.141	0.352	

다. 중립성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 측정은 진행자와 패널의 논조의 중립성을 묻는 두 문항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모두 2.83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중간 값인 3점을 밑돌았다. 3점을 기준으로 0.17의 편향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4.25에 해당한다. 3점 이하는 '정부/여당/여권에 우호적인 경향'을 의미하므로, 민주당 또는 민주당 정권에 조금 우호적이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분산은 0.580 ~ 0.594로 나타났다. 특히 패널의 논조에 대한 결과는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편향성을 보인다는 이영주(2016)의 견해와 부합한다. 또한 패널 중에서 정당 관련 인사가 많아지는 추세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손화정・이영주, 2019).

그러므로 MBN은 선거기간 동안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및 패널 모두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에 다소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0>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시사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진행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8	5.3	2.83	0.594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121	22.8		
	3) 중립적이었다	302	57.0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73	13.8		
	5)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6	1.1		
o 패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7	5.1	2.83	0.580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119	22.5		
	3) 중립적이었다	307	57.9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71	13.4		
	5)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6	1.1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대한 두 문항을 세부 집단별로 분류하여 응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ANOVA 또는 Welch 분석 수행 결과 두 문항 모두 세부 집단 사이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31>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시사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진행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성별	6.347* (0.012)	3.200	0.074	
	연령	0.999 (0.408)	1.218	0.302	
	소득	1.293 (0.251)	0.583	0.770	
	학력	1.120 (0.341)	0.716	0.543	
	정치성향	2.921* (0.021)	0.580	0.679	
o 패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성별	4.025* (0.045)	1.826	0.177	
	연령	1.694 (0.150)	1.327	0.259	
	소득	2.112* (0.041)	0.617	0.742	
	학력	0.913 (0.434)	1.677	0.171	
	정치성향	5.027** (0.001)	0.970	0.435	

라. 다양성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 문항의 평균값이 모두 3.39 ~ 3.60으로 나타났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8 ~ 72점에 해당한다. 분산은 0.648 ~ 0.806으로 나타났다.

세 문항 중에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가 3.60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의 분산도 0.64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동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MBN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거관련 이슈를 충실하게 다루었다’가 3.5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MBN은 방송의 다양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성 구현 역할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MBN 시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항목에 대해서는 3.39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MBN 시사 프로그램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32>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시사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5) 매우그렇다	62	11.7	3.60	0.648
	4) 조금그렇다	239	45.1		
	3) 그저그렇다	187	35.3		
	2) 별로그렇지 않다	40	7.5		
	1) 전혀그렇지 않다	2	0.4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5) 매우그렇다	49	9.2	3.39	0.806
	4) 조금그렇다	203	38.3		
	3) 그저그렇다	193	36.4		
	2) 별로그렇지 않다	77	14.5		
	1) 전혀그렇지 않다	8	1.5		
o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다루었다	5) 매우그렇다	64	12.1	3.52	0.745
	4) 조금그렇다	211	39.8		
	3) 그저그렇다	200	37.7		
	2) 별로그렇지 않다	49	9.2		
	1) 전혀그렇지 않다	6	1.1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문항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20대가 50대나 60대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지역에 대한 항목에서는 연령과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대와 60대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재 및 대졸 응답자가 고졸과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회적 약자 항목에서는 세부 집

단들 사이에서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양성 항목에서는 20대와 대재 또는 대졸 응답자의 부정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표33> 시사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시사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성별	4.015* (0.046)	0.177	0.674	
	연령	0.685 (0.603)	4.156**	0.003	20대<50대 &60대
	소득	2.145* (0.038)	1.055	0.395	
	학력	2.880* (0.035)	1.538	0.224	
	정치성향	1.849 (0.118)	0.810	0.519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성별	0.172 (0.679)	0.001	0.970	
	연령	0.506 (0.731)	1.221	0.301	
	소득	0.799 (0.588)	1.248	0.274	
	학력	1.141 (0.332)	1.602	0.188	
	정치성향	0.138 (0.968)	1.140	0.337	
o 지역의 선거관련 이슈를 충실하게 다루었다	성별	2.258 (0.134)	0.002	0.962	
	연령	0.620 (0.649)	2.759*	0.027	20대<40대 &60대 (Duncan)
	소득	1.289 (0.253)	1.381	0.211	
	학력	2.841* (0.037)	4.179*	0.013	대졸<고졸 &대학원
	정치성향	2.109 (0.078)	0.500	0.736	

마. 적절성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한 총 다섯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45 ~ 3.61로 나타났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9 ~ 72점에 해당한다. 분산은 0.734~0.848로 나타났다.

다섯 문항 중에서 ‘MBN 시사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가 3.61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의 분산은 0.791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는 3.56으로 두 번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와 ‘MBN 시사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가 3.50과 3.49의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가 3.45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MBN은 선거방송 기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적절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보다는 진행자의 전문성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절성의 향상을 위해 패널들의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들을 뒷받침한다(이만제, 2022.1).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이 보다 깊이 있는 내용과,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 대해 세부 집단들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적절한 정보에 대해서는 20대가 50대와 60대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진행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20대가 40대와 50대, 60대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므로 MBN의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 20대의 부정적인 태도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ANOVA를 통해 패널의 전문성과 중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 항목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 집단간의 차이는 사후분석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34>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MBN 시사 프로그램은 ~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5) 매우그렇다	68	12.8	3.49	0.848
	4) 조금그렇다	203	38.3		
	3) 그저그렇다	191	36.0		
	2) 별로그렇지 않다	57	10.8		
	1) 전혀그렇지 않다	11	2.1		
o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5) 매우그렇다	82	15.5	3.61	0.791
	4) 조금그렇다	215	40.6		
	3) 그저그렇다	183	34.5		
	2) 별로그렇지 않다	43	8.1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o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	5) 매우그렇다	62	11.7	3.45	0.846
	4) 조금그렇다	199	37.5		
	3) 그저그렇다	201	37.9		
	2) 별로그렇지 않다	54	10.2		
	1) 전혀그렇지 않다	14	2.6		
o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	5) 매우그렇다	72	13.6	3.56	0.773
	4) 조금그렇다	209	39.4		
	3) 그저그렇다	200	37.7		
	2) 별로그렇지 않다	40	7.5		
	1) 전혀그렇지 않다	9	1.7		
o 중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	5) 매우그렇다	63	11.9	3.50	0.734
	4) 조금그렇다	195	36.8		
	3) 그저그렇다	221	41.7		
	2) 별로그렇지 않다	44	8.3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표35> 시사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시사 프로그램은 ~		Levene 통계량	ANOVA/Welch		
			F값	P	사후분석
o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성별	5.524* (0.019)	0.110	0.741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연령	0.919 (0.453)	2.012	0.092	
	소득	1.251 (0.273)	0.884	0.519	
	학력	2.410 (0.066)	1.813	0.144	
	정치성향	0.920 (0.452)	1.385	0.238	
o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성별	3.586 (0.059)	0.202	0.653	
	연령	2.453* (0.045)	4.378**	0.002	20대<50대&60대
	소득	1.566 (0.143)	1.455	0.181	
	학력	2.771* (0.041)	1.265	0.303	
	정치성향	1.655 (0.159)	1.144	0.335	
o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	성별	2.479 (0.116)	1.999	0.158	
	연령	0.402 (0.807)	0.673	0.611	
	소득	1.072 (0.380)	1.778	0.089	
	학력	0.718 (0.541)	0.629	0.597	
	정치성향	1.284 (0.275)	2.825*	0.024	
o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	성별	10.675** (0.001)	0.000	0.996	
	연령	0.524 (0.718)	2.615*	0.035	20대<40대&50대 &60대(Duncan)
	소득	0.650 (0.714)	1.299	0.248	
	학력	3.070* (0.028)	1.506	0.232	
	정치성향	2.113 (0.078)	1.967	0.098	
o 중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별	0.240 (0.624)	0.658	0.418	
	연령	0.297 (0.880)	0.951	0.434	
	소득	1.341 (0.229)	0.917	0.493	
	학력	0.482 (0.695)	2.462	0.062	
	정치성향	1.234 (0.295)	2.951*	0.020	

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표36>에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 진실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균형성과 적절성, 다양성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성은 중간 값인 3.0에서 평균 0.17 만큼 여당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MBN의 시사 프로그램은 진실성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6>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모형의 하위 개념별 평균값

공정성 하위 개념	문항 수	평균값	분산
진실성	2	3.56~3.62	0.686~0.780
균형성	5	3.47~3.59	0.742~0.828
중립성	2	2.83	0.580~0.594
다양성	3	3.39~3.60	0.648~0.806
적절성	5	3.45~3.61	0.734~0.848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인 만족도, 신뢰도, 품질, 그리고 공정성을 5점 척도로 물었다. 문항간에 응답의 평균값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종합적인 만족도, 품질, 공정성이 3.49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종합적인 신뢰도가 3.46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37> MB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응답자 수	비중	평균값	분산
o 종합적인 만족도	5) 매우그렇다	50	9.4	3.49	0.719
	4) 조금그렇다	229	43.2		
	3) 그저그렇다	191	36.0		
	2) 별로그렇지 않다	53	10.0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o 종합적인 신뢰도	5) 매우그렇다	46	8.7	3.46	0.691
	4) 조금그렇다	215	40.6		
	3) 그저그렇다	210	39.6		
	2) 별로그렇지 않다	53	10.0		
	1) 전혀그렇지 않다	6	1.1		
o 종합적인 품질	5) 매우그렇다	45	8.5	3.49	0.644
	4) 조금그렇다	224	42.3		
	3) 그저그렇다	214	40.4		
	2) 별로그렇지 않다	41	7.7		
	1) 전혀그렇지 않다	6	1.1		
o 종합적인 공정성	5) 매우그렇다	48	9.1	3.49	0.685
	4) 조금그렇다	224	42.3		
	3) 그저그렇다	205	38.7		
	2) 별로그렇지 않다	46	8.7		
	1) 전혀그렇지 않다	7	1.3		

MBN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세부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종합적인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는 20대가 60대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개 항목 모두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만족도와 공정성은 약간 보수적인 계층이 약간 진보적인 계층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사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뢰도와 품질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MBN은 20대와 진보 계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사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38> MBN 시사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Levene 통계량	ANOVA / Welch		
			F값	P	사후분석
o 종합적인 만족도	성별	4.218* (0.040)	0.065	0.799	
	연령	1.498 (0.202)	3.916**	0.004	20대<60대
	소득	0.875 (0.526)	0.712	0.662	
	학력	1.225 (0.300)	1.370	0.251	
	정치성향	2.839* (0.024)	2.780*	0.041	약간보수>약간진보
o 종합적인 신뢰도	성별	1.680 (0.195)	0.002	0.962	
	연령	0.767 (0.547)	3.229*	0.012	20대<60대
	소득	0.936 (0.478)	1.142	0.335	
	학력	0.786 (0.502)	1.901	0.128	
	정치성향	2.222 (0.065)	2.443*	0.046	
o 종합적인 품질	성별	2.063 (0.151)	0.105	0.746	
	연령	1.350 (0.250)	1.820	0.124	
	소득	0.883 (0.520)	0.859	0.539	
	학력	0.762 (0.515)	1.575	0.194	
	정치성향	3.085* (0.016)	2.816*	0.038	
o 종합적인 공정성	성별	2.339 (0.127)	0.996	0.319	
	연령	0.549 (0.700)	2.055	0.086	
	소득	0.506 (0.830)	0.901	0.505	
	학력	0.291 (0.832)	1.587	0.192	
	정치성향	4.081** (0.003)	3.541*	0.015	약간보수>약간진보

사. 타 방송 채널과의 비교

타 방송사와의 비교를 위해 평소에 시청하는 TV 시사 프로그램의 채널을 질문한 후, 응답한 채널에서 제공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공정성을 5점 척도로 물었다.

지상파방송인 A, B, C, 그리고 유료방송 PP인 H사가 3.61 ~ 3.65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와 G사는 3.58 ~ 3.59로 뒤를 따랐다. 종합편성 채널인 D와 F는 3.29 ~ 3.45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MBN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성 3.49는 종편 4채널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도전문 PP 혹은 지상파방송사와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9> 평소에 시청하는 타 TV채널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방송사		평균값	분산
지상파	A	3.61	0.745
	B	3.65	1.021
	C	3.61	0.756
종편	D	3.29	1.113
	E	3.59	0.735
	F	3.45	0.807
보도전문	G	3.58	0.744
	H	3.64	0.657

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간 비교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표40>에는 두 프로그램의 평균값 뿐만 아니라,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t-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집단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므로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고, 신뢰구간 95%에 양측검증을 적용하였다.

<표40>의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통 문항들에서 두 프로그램 사이에 평가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두 프

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구성 하위 개념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소수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사실관계 전달에 대해서는 뉴스가 다소 큰 점수 차이로 시사 프로그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데스크의 게이트 키핑을 거친 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뉴스에 비해, 패널들간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의 충실한 전달에 대해서도 뉴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시사 프로그램이 주로 뉴스에서 보도된 기사 중 일부를 주제로 선별하여 제작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뉴스에서 다루어진 기사 중에서 지역에 대한 내용이 시사 프로그램의 토론 주제로 선택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성에서 적절한 정보를 담았는지에 대해서도 뉴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절성이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한다는 내용이므로(이민웅 외, 1993), 다양한 기사를 다룰 수 있는 뉴스가 시사 프로그램보다는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종합적인 만족도도 뉴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상의 차이가 종합적인 신뢰도나 품질, 그리고 공정성에 대하여 두 프로그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은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로 동일한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항목에서 뉴스가 다소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표40>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구성 항목	세부 항목	평균값			집단 차이	
		뉴스	시사	t-값	뉴스	시사
진실성	o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3.71	3.62	-3.023**	연령	
	o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	3.60	3.56	-1.484	연령, 학력	연령, 정치성향
	o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3.80			연령	
균형성	o 보도량/방송량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3.49	3.47	-0.803	연령	
	o 자료 화면이 한 쪽에	3.55	3.52	-1.163	연령	

	치우치지 않았다					
	o 인터뷰이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3.55				
	o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	3.61	3.59	-0.651		
	o 패널의 수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3.53			
	o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3.51			
중립성	기자의 논조	2.79				
	진행자의 논조	2.85	2.83	1.141	연령	
	패널의 논조		2.83			
다양성	o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3.63	3.60	-0.851		연령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3.37	3.39	0.700	연령	
	o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3.59	3.52	-2.099*	연령	연령, 학력
	o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	3.48			연령	
적절성	o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3.48	3.49	0.474	연령	
	o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	3.67	3.61	-2.098*		연령
	o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		3.45			정치성향
	o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		3.56			연령
	o 중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		3.50			정치성향
종합	o 종합적인 만족도	3.54	3.49	-2.205*	연령	연령, 정치성향
	o 종합적인 신뢰도	3.46	3.46	-0.320	연령	연령, 정치성향
	o 종합적인 품질	3.48	3.49	0.758	학력, 정치성향	정치성향
	o 종합적인 공정성	3.47	3.49	0.737	정치성향	정치성향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

3. 공정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의 종합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할 수 있다면, MBN이 앞으로 공정성 개선 노력을 추진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평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회귀모형을 만들고, 설문조사로부터 구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공정성의 하위 5개 개념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각 개념들은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일 개념 내의 문항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우려로 인해 이들을 모두 설명변수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념별로 하나의 변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흔히 활용된다.

그런데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신뢰도 검증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데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행되는 작업이다. 분석 결과는 크론바하 알파(Chronbach ‘s alpha) 값으로 판단을 하는데, 0.6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에 대해 신뢰도 검사를 수행한 결과가 <표41>에 나타나 있다. 모두 0.782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척도로서의 신뢰성을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문항을 제외할 경우의 알파 계수 값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변화의 폭이 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정성의 하위 개념별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단일 변수로 압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KMO(Kaiser-Meyer-Olkin) 측도’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하위 개념에서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모두 유의수준 0.000으로 나타나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하위 개념별로 하나씩 압축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41> 공정성의 하위 개념에 대한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 항목	세부 항목	Chronbach's alpha	
		뉴스	시사
진실성	o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0.833	0.833
	o 오보일 경우에 정정보도를 하였다		
	o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균형성	o 보도량/방송량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0.935	0.939
	o 자료 화면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o 인터뷰이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o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		0.939
	o 패널의 수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o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중립성	기자의 논조	0.782	
	진행자의 논조		0.856
	패널의 논조		
다양성	o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0.889	0.856
	o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o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o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		
적절성	o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0.874	0.930
	o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		
	o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		
	o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		
	o 중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구한 5개의 새로운 변수들과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공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자료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는 효율적인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료 분석에 최적화된 서열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분석의 효율성이 떨어져 분산이 증가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5개 개념에 대한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독립변수들에 대한 분산 인플레이션 팩터(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3 ~ 6.46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42>에는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보여지고 있다.

<표42>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계수		내용	형식
종속변수	Cfair	종합적인 공정성	①전혀 공정하지 않다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독립변수	GENDER	성	①남자 ②여자
	AGE	나이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WATCH	MBN의 뉴스 또는 시사 프로그램 시청빈도	①매일 ②2~3일에 한 번 ③3~4일에 한 번 ④일주일에 한 번
	HINC	월 가구 소득	①100만원 이하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1~500만원 ⑥501~600만원 ⑦601~700만원 ⑧701만원 이상
	EDU	최종 교육 수준	①중졸 이하 ②고졸 ③대재/대졸 ④대학원재/대학원졸
	POLT	정치적 성향	①매우 보수적 ②약간 보수적 ③중도적 ④약간 진보적 ⑤매우 진보적
	FACT	진실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AL	균형성	
	NEUT	중립성	①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 ②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 ③중립적 ④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 ⑤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
	VAR	다양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DEQ	적절성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거의 없었다. 그 중에서 교육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MBN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진보적일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공정성의 하위 개념 가운데 진실성, 균형성, 다양성, 그리고 적절성이 공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균형성, 다양성, 그리고 적절성이 공정성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MBN이 제작하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43> 서열 프로빗 분석 결과

계수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C	4.6000	10.0228***	5.7133	10.8148***
GENDER	-0.1483	-1.4126	-0.1840	-1.6256
AGE	-0.0180	-0.4741	-0.0211	-0.5186
WATCH	0.0204	0.3573	-0.0820	-1.4520
HINC	0.0140	0.5439	0.0402	1.4468
EDU	-0.1454	-1.6520*	-0.2049	-2.150*
POLT	-0.1434	-2.0538**	-0.1194	-1.5747
FACT	-0.1672	-1.7677*	-0.0738	-0.6924
BAL	-0.4743	-5.0195***	-0.8681	-7.003***
NEUT	-0.0067	-0.1310	-0.0769	-1.4042
VAR	-0.4464	-4.0242***	-0.3545	-2.868***
ADEQ	-0.3946	-3.9680***	-0.5627	-4.0535***
우도비	471.1125***		604.1084***	
적합도 (Scaled R-squared)	0.665		0.785	

* p<0.1, ** p<0.05, *** p<0.01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된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부과된 조건에 의거하여 MBN이 제작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초반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치루어졌으므로, 선거보도를 대상으로 공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공익성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는데, 아직 개념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권형둔 외(2015)가 실증적으로 밝힌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된 5가지의 공정성 하위 개념들을 채택하였다. 이 개념들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유용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으로 공정성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송 내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자의 인식 또는 평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계적인 균형성이 실질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연구진이 동의하였으며, 측정 항목들과 공정성의 구현 사이에 연계성도 모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은 결국 시청자에게 소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청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MBN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연구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하위 개념들에 대해 복수의 질문 문항을 선행연구 사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MBN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을 각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530개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사전에 성,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통계 현황과 근사하도록 표본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5개 하위 항목 중에서 진실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균형성, 다양성, 적절성은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MBN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실관계(팩트)도 비교적 정확히 전달하였으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 시국에 가짜뉴스 등

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오보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균형성에 대해서 MBN 뉴스 프로그램은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골고루 보도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도량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평가가 낮았다. 그러므로 MBN은 편성에서 형식적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립성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기자의 논조가 당시의 여당에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MBN의 뉴스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역의 선거관련 소식도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보도하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모든 문항들을 세부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인 공정성에서 보수 계층이 진보 계층보다 MBN의 뉴스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므로 20대와 진보 계층에게도 MBN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소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MBN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타 채널과 비교하면,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 MBN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이나 보도전문 PP와는 아직 차이가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진실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균형성과 적절성, 다양성이 비슷하게 평가받았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MBN의 시사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였다는 문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보의 정정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처럼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균형성에 대해서는 패널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량의 치우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편성 측면의 보완이 요구된다. 중립성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패널의 논조가 모두 당시 여당에 다소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한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 입장을 반영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패널의 전문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패널들의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세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인 공정성이나 만족도에서는 보수 계층이 진보 계층보다 MBN의 시사 프로그램을 더 높게 평가했다. 그러므로 20대와 진보 계층에게도 MBN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소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MBN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타 채널과 비교하면,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상파나 보도전문 PP와는 아직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MBN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들의 평균값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종합적인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두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개선 노력의 방향이나 전략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공정성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진실성, 균형성, 다양성, 적절성이,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균형성, 다양성, 적절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MBN이 제작하는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하여 MBN의 액션플랜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o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공동

①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정정보도

② 보도량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성전략 개선

③ 특정 정치권에 우호적인 입장 개선

④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 배려

⑤ 20대와 진보계층에 소구

o 뉴스 프로그램

①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충분히 제공

o 시사 프로그램

①패널진의 전문성 강화

참고 문헌

강명구(1989), 탈사실의 시대에 있어 뉴스 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 26, 83-111.

강명현(2016),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뉴스특성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6(1), 5-36.

강태영(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정치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1-17.

강태영・권영설(2000),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2021.12),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선거보도 품질 진단.

구교태(2016),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자막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6(1), 37-58.

권형둔・하주용・배진아(2015),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김경환(2015),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및 평가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 한국방송협회 주최 방송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

김관규・배진한・김용환・박연진(2021.1),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김대호(2005), 영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강종근 외, 한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연구보고 2005-8), 방송위원회.

김승수(2004), 언론산업의 정치경제학, 개마고원.

김승수(2007),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이론적 진화, 한국언론정보학회 매체자본연구회 하계워크숍

김연식(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1), 161-186.

김영빈・한혜경(2018), 종합편성 채널 시사토크쇼의 정치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 JTBC<정치부 회의>에 대한 계층적/기능적 분화형식 분석, 언론과사회, 26(3), 60-116.

김재영・이승선(2012), 종합편성채널 정책 평가: 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4(1), 7-38.

김정렴・전종우(2017), 정치예능 프로그램이 종합편성 채널 시청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 신뢰도와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28(7), 7-27.

김진웅(2003),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 6-31.

김창규(2005), 한국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237-290.

김형성・지성우(2005), 독일의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 연구, 방송 허가·재허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노동렬・조아라(2022.1.), TV조선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도준호・변상규(2010),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광고할당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류동협・홍성일(2013),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부르디외의 저널리즘장 이론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5, 19-36.

문재완(2018),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46(4), 213-244.

문종대・윤영태(2004), 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한국언론정보학보, 27, 94-122.

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 183-210.

박동욱・이종원・김태오・박민성(2014),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성호(2017), 공영방송 뉴스의 불편부당성 연구: BBC와 KBS의 선거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 종편 시사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쾌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22(2), 5-63.

박현수(2011), 방송 및 광고시장 변화에 따른 광고 정책 대응 방안, 한국광고학회 종합편성채널 및 미디어랩 등장에 따른 광고계 대응방안 세미나.

박형준(2014), 종편으로 인해 도입한 통합 뉴스룸이 신문 기자의 뉴스 생산과 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9(2), 199-215.

방송통신위원회(2010.9.1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2021.12),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배진아(2007),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방송연구, 여름호. 74-101.

배진아・유수정(2021), TV 시사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한국언론학보, 65(3), 201-238.

성욱제(2013),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25(1), 135-161.

손화정・이영주(2019),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 특성 및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19(5), 659-668.

송승호・김동규(2018), 다채널 시대 TV방송 평론가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OOH광고학연구, 15(2), 5-25.

송종현(2011),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의 매체별 차별화 방안 검토.

심훈(2014), 한국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 평가: 공정보도 계측을 위한 모델 구축 및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한국언론정보학보, 66, 110-132.

연합뉴스(2017.2.21.), 종편 시청자 공정성 객관성에 가장 불만 많아.

오은정・민영(2015), 정치 엔터테인먼트 시청이 내재적 심리 욕구와 정치학습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9(4), 44-73.

원용진・홍성일・방희경(2008), PD저널리즘: 한국방송 저널리즘 속 일탈, 서울: 한나래.

원희영・윤석민(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1), 117-148.

유경한・심훈・김경모(2016),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선거 관련 대담 분석: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발화행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97, 93-128.

유수정(2018), 종편 출범 초기의 지상파와 종편 메인뉴스의 주제 구성 및 다양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53-64.

유수정・이건호(2017), 메인 뉴스 논조 차별화가 드러낸 한국 종편 저널리즘의 지형: 무상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1), 7-35.

유승관(20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방송 프로그램 심의 결정의 특성 연구: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15(3), 63-95.

유용민(2018), 대통령 탄핵심판 보도의 취재원 특성: 지상파 및 종편 메인 뉴스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02, 9-45.

유종원(1995),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3(봄호), 137-164.

윤석민(2015), 미디어 공정성 연구, 서울:나남.

윤성옥(2009),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규제와 규제 범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1), 37-77.

이기형(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78, 104-128.
이만제(2022.1),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이민웅(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이민웅(2003), 저널리즘: 위기・변화・지속, 서울:나남.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언론인과 시청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36, 180-213.
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태진・김경모(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지식산업사.
이삼섭(2022.1.2.), 대신협 공동 여론조사 10명 중 4명 중도층 보수・진보비율 엇비슷, 무등일보.
이승엽・양기문・이상우(2017),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31(1), 149-183.
이영주(2016),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과 재조명, 한국언론정보학보, 77, 36-72.
이완수(2019), 사람들은 왜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미디어와 인격권, 5(2), 83-142.
이완수・박재영(2013),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1), 5-46.
이정훈・이상기(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7, 9-35.
이종원(2014),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제도 개선방향(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혁・정낙원・김세은(2017), 선거 방송의 평가 기준과 실제, 방송통신연구, 97, 129-163.
이준웅・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2008년 겨울호, 9-44.
이진영・박재영(2010), 한국 신문 보도의 다양성 연구: 한겨레 시장 진입 전후(1986~2005)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3), 301-325.
이창근(1997), 영국방송사, 강현두 외 공저, 세계방송의 역사 , 서울: 나남.
이창현(2008),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PD수첩〉 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08년 겨울호,

45-68.
이효성(1996), 한국 언론의 좌표,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효성(2002),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임정수(2008), 방송공익의 개념적 파생에 대한 칸트 윤리학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52(6), 5-443.
전현수(2011), SO 재허가 심사기준 개정 연구.
전희락・황성연(2022.1), MBN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평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동우・황용석(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 차이 연구: 객관주의적・탈객관주의적 관점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20(3), 120-160.
정인숙・정상윤(2011),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및 재허가 심사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54, 58-75.
정지영·유세경(2015), 적소이론의 관점에서 본 종합편성채널의 편성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4), 357-390.
조경숙・한균태(2010),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미디어관련법 개정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30), 133-165.
조연하(2012),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4), 203-236.
조은영・유세경(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3), 433-461.
조항제(2019), 한국 언론의 공정성: 이론적 구성, 컬처룩.
주성희·김대규·김성규(2012),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영묵(1997),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최영재・홍성구(2004),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326-342.
최우정(2014), 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공적책무 달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45, 183-214.
한균태(2003), 언론학적 관점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159-236.
홍대식(2011),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홍성철・김동준・오경수(2022.1), TV 조선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 KBS와 MBC 뉴스 프로그램과의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홍성철・오경수・류은아(2021.12), TV 조선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KBS와 MBC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과의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Annan, N.G.(197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Broadcasting.*

Arbuckle, M.(2014), Political Broadcasting Fair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utting Candidates and the Public on Equal First Amendment Footing, 36 Hastings Comm. & Ent. L.J.

Barendt, E.M.(1992), *Broadcasting Law: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roanauer, A.(1994), The Fairness Doctrine: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 *Federal Communication Law Journal*, 47(1), 27-58.

Kovach, B. & Rosenstiel, T.(2001), *The Element of journalism*, Danvers, MA: Three Rivers Press. 이종욱 역(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서울:한국언론재단.

McQuail, D.(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London: Sage, 양승찬・이강형 역(2008),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Pennycook, G. & Rand, D.G.(2019), Lazy not biased: Susceptibility to partisan fake news is better explained by lack of reasoning than by motivated reasoning, *Cognition,* 188, 39-50.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Ward, S.J.(2015),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The Path to Objectivity and Beyond*, Montreal & Kingston: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Westerstahl, J.(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m Research,* 10(3), 403-424.

표준국어대시전(https://stdict.korean.go.kr)

MBN 홈 페이지(www.mbn.co.kr)

[부록] 설문지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출생연도 ( )년 = 만 _____세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래 지도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광역시, 도 단위로 선택)

SQ4. 평소에 귀하께서 **일주일에 1회 이상**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채널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선택]
1) KBS 2) MBC 3) SBS 4) MBN 5) TV조선
6) jtbc 7) 채널A 8) 연합뉴스TV 9) YTN 10) 이 중에 없음

SQ4_1. 귀하는 MBN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지난 프로그램 다시보기, 유튜브 등을 통한 비실시간 시청도 포함)
1) 매일 2) 2~3일에 한 번 3) 3~4일에 한 번 4) 일주일에 한 번
5) 2주일에 한 번 →OUT 6) 한 달에 한 번 →OUT 7) 시청 안 함 →OUT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굿모닝 MBN</td><td>MBN 뉴스7</td><td>MBN 뉴스센터</td></tr>
<tr><td colspan="2">
</td><td>
</td></tr>
<tr><td colspan="2">MBN 뉴스와이드 주말</td><td>전국네트워크뉴스</td></tr>
</table>

SQ5. 평소에 귀하께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채널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선택]

1) KBS 2) MBC 3) SBS 4) MBN 5) TV조선
6) jtbc 7) 채널A 8) 연합뉴스TV 9) YTN 10) 이 중에 없음

SQ5_1. 귀하는 MBN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
(지난 프로그램 다시보기, 유튜브 등을 통한 비실시간 시청도 포함)

1) 매일 2) 2~3일에 한 번 3) 3~4일에 한 번 4) 일주일에 한 번
5) 2주일에 한 번→**OUT** 6) 한 달에 한 번→**OUT** 7) 시청 안 함→**OUT**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뉴스파이터</td><td>시사 스페셜</td><td>아침&매일경제</td></tr>
<tr><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MBN 뉴스와이드</td><td colspan="2">MBN프레스룸</td></tr>
</table>

MBN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선거방송 공정성 조사

본 조사는 2022년에 두 차례 시행된 선거기간 동안에 종합편성 채널 MBN(매일방송)이 제공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9일에 치른 **20대 대통령 선거**와, 2022년 6월 1일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MBN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선거 관련 방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Q.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OUT**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2022.2.15. ~ 3.8.) 및 투표일(2022.3.9.),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2022.5.19. ~ 5.31)과 투표일(6.1) 동안에 **MBN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 **MBN의 뉴스 프로그램**

굿모닝 MBN, MBN 뉴스7, MBN 뉴스센터, MBN 뉴스와이드 주말, 전국네트워크뉴스

A1.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사실관계(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오보일 경우에 정정 보도를 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질문 내용, 오차 한계 등을 고지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보도량(기사의 수, 보도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인터뷰이*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골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다	1	2	3	4	5

A2.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귀하가 느낀 바를 토대로,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MBN 뉴스 프로그램은 기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_____

(* 민주당, ** 국민의 힘)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3) 중립적이었다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5) 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A3.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귀하가 느낀 바를 토대로,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진행자(앵커)의 논조가 평균적으로 _____ **(* 민주당, ** 국민의 힘)**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3) 중립적이었다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5) 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A4.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MBN 뉴스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거관련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보도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1	2	3	4	5
MBN 뉴스 프로그램은 뉴스로서 적절한 정보를 담았다.	1	2	3	4	5

A5.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A6.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매우 신뢰도가 낮다	조금 신뢰도가 낮다	그저 그렇다	조금 신뢰도가 높다	매우 신뢰도가 높다
1	2	3	4	5

A7.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을 응답해 주세요.

매우 품질이 낮다	조금 품질이 낮다	그저 그렇다	조금 품질이 높다	매우 품질이 높다
1	2	3	4	5

A8. MBN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성**을 응답해 주세요.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2	3	4	5

A9. MBN 이외에 귀하께서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TV 뉴스채널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1) TV조선 2) jtbc 3) 채널A 4) YTN
5) 연합뉴스TV 6) KBS 7) MBC 8) SBS
9) 이 중에 없음

A9_1. 채널별 뉴스 프로그램의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을 응답해 주세요. ☜ [A9 선택 보기만 제시]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TV조선	1	2	3	4	5
Jtbc	1	2	3	4	5
채널A	1	2	3	4	5
YTN	1	2	3	4	5
연합뉴스TV	1	2	3	4	5
KBS	1	2	3	4	5

MBC	1	2	3	4	5
SBS	1	2	3	4	5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2022.2.15. ~ 3.8.) 및 투표일(2022.3.9.),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2022.5.19. ~ 5.31)과 투표일(6.1) 기간 동안 **MBN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 **MBN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이터, 시사 스페셜, 아침&매일경제, MBN 뉴스와이드, MBN프레스룸

B1.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사실관계(팩트)를 정확히 전달하였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오보일 경우에 정정하였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방송량(아이템 수, 방송 시간 등)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이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상반되는 이슈에 대해 패널들에게 찬반의견을 동등한 비중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의 수가 한 쪽(정당, 후보 등)에 치우치지 않았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1	2	3	4	5

B2.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하여 귀하가 느낀 바를 토대로,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_____

(* 민주당, ** 국민의 힘)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3) 중립적이었다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5) 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B3.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하여 귀하가 느낀 바를 토대로,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의 논조가 평균적으로_____
(* 민주당, ** 국민의 힘)

1) 정부/여당/여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2) 정부/여당/여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3) 중립적이었다
4) 야당/야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5) 야당/야권**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B4.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MBN 시사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나 관점을 제공하였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였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거관련 이슈를 충실하게 다루었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 없이 충분히 제공하였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들의 전문성이 높았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전문성이 높았다	1	2	3	4	5
MBN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다.	1	2	3	4	5

B5.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B6.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매우 신뢰도가 낮다	조금 신뢰도가 낮다	그저 그렇다	조금 신뢰도가 높다	매우 신뢰도가 높다
1	2	3	4	5

B7.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을 응답해 주세요.

매우 품질이 낮다	조금 품질이 낮다	그저 그렇다	조금 품질이 높다	매우 품질이 높다
1	2	3	4	5

B8. MBN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성**을 응답해 주세요.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2	3	4	5

B9. MBN 이외에 귀하께서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TV 시사채널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1) TV조선 2) jtbc 3) 채널A 4) YTN
5) 연합뉴스TV 6) KBS 7) MBC 8) SBS
9) 이 중에 없음

B9_1. 채널별 시사 프로그램의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을 응답해 주세요. ☜ [A9 선택 보기만 제시]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TV조선	1	2	3	4	5
Jtbc	1	2	3	4	5
채널A	1	2	3	4	5
YTN	1	2	3	4	5
연합뉴스TV	1	2	3	4	5
KBS	1	2	3	4	5

MBC	1	2	3	4	5
SBS	1	2	3	4	5

DQ1. 귀하 가구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1) 100만원 이하 2) 101~200만원 3) 201~300만원
4) 301~400만원 5) 401~500만원 6) 501~600만원
7) 601~700만원 8) 701만원 이상

DQ2. 귀하의 최종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선택]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대졸 4) 대학원재/대학원졸

DQ3. 귀하의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보수적이다	약간 보수적이다	중도적이다	약간 진보적이다	매우 진보적이다
1	2	3	4	5